

2016. 6. 10.

백제문화제 활성화 방안

선임연구위원
이 인 배

【 목 차 】

1. 백제문화제의 변화 필요성과 변천과정

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② 백제문화제 유래와 연혁	2
③ 조직개편과 예산의 변화	4
④ 행사기간과 내용의 변화	8

2. 백제문화제 개최 현황과 발전 과제

① 과거 백제문화제와 공주·부여 개최 특성 비교	13
②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 현황 분석	19
③ 2015년 백제문화제 결과와 제62회 계획 분석	24
④ 백제문화제 전문가 간담회 제시 의견검토	30
⑤ 변천과정과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 과제	43

3. 백제문화제 활성화 방안

① 추진방향	44
② 백제문화제 킬러콘텐츠 발굴과 글로벌화 방안	46
③ 조직의 강화 재정비와 관리운영 역량강화 방안	50
④ 행사재원 효율화 및 수익사업 육성 방안	54
⑤ 지역단체 및 인접 시군협력과 참여 확대 방안	56

1.

백제문화제 변화의 필요성과 변천과정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① 연구의 필요성

■ 세계유산등재와 더불어 차별화와 세계화의 역량 결집이 필요함

- 백제문화제는 경주의 신라문화제와 진주의 개천예술제와 더불어 전국 3대 문화제로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더불어 충남의 문화역량의 세계에 선양하기 위해 차별화와 지역역량 결집이 필요함

■ 60회 이상 개최해 왔으나 백제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 반영 미흡

- 2016년 현재 62회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제로 개최되어 왔으나 백제문화의 정체성 및 고유성의 반영과 관광객의 유인력이 미흡함

■ 타 문화제에 비해 많은 재정 투입 대비 명성과 성과의 내실화 부족

- 2007년 52억원, 2010년 세계대백제전 318억원, 2015년 675억원의 사업비로 타 문화제에 비하여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촉진 등 명성과 성과의 내실화가 부족함

■ 조직, 관리운영, 주민 및 시군협력 등의 개선방안 마련 요구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조직의 설립 및 운영과,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운영과 주민참여와 시·군협력 등의 개선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② 연구의 목적

■ 백제문화제의 전반적 종합분석을 통한 활성화 과제의 도출

- 백제문화제의 개최주기, 행사장과 주요 콘텐츠와 문제점, 추진조직과 관리운영, 재정 및 수익사업, 주민참여와 시·군 협력 등 종합분석을 통한 활성화의 과제를 도출함

■ 향후 백제문화제의 추진방향과 부문별 활성화 방안 제시

- 활성화의 도출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제문화제의 추진방향과 과제별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대책 등을 제시함

2 백제문화제 유래와 연혁

① 백제문화제의 유래

■ 시작과 규모

- 1955년 : 백제대제집행위원회 구성, ‘백제대제’ 거행
 - 소요경비 : 부여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
 - 백제대제 : 3충신(성충, 홍수, 계백)을 기리는 「삼충제」
삼천궁녀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제」
- 11965년 : 충청남도 주최로 이양된 후 규모 확대
- 1966년 : 공주시에서 백제4대왕 및 고흥박사 추모제 거행
 - ※ 4대왕 :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

■ 명칭변경

- 1967년 : 백제문화제로 명칭 변경 → 종합문화축제로 육성

② 백제문화제 연혁

■ 도입단계('55~'65) : 부여 단독 개최(1회~11회)

- 순수한 민간 주도 행사, 부여군 단독 개최
- 종합문화예술제 성격을 갖는 소박한 지역행사
 - 제 레 : 삼충제, 궁녀제, 별신굿 등
 - 민속놀이 : 농악, 그네, 궁도, 씨름 등
 - 문화예술행사 : 시조·백일장·백제공주 선발대회, 가장행렬 등

■ 정착단계('66~'78) : 공주·부여 동시 개최(12회~24회)

- 행정기관 주도 및 점차적으로 규모 확대
 - 「백제대제」에서 「백제문화제」로 명칭변경
 - 백제문화제 활성화대책 수립, 행정기관 주도 및 예산 지원
 - 도내 전 지역으로 열기를 확산코자 대전까지 확대개최('75~'78)
 - ※ 대전시 행사가 전시 위주라는 비판으로 '79년부터 제외

■ 발전단계('79~'06) : 공주·부여 윤번제 개최(25회~52회)

-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로 질적·양적 수준 제고
- 부여 40여종, 공주 70~100여종으로 프로그램 확대

■ 정착단계('07~현재) : 공주·부여 통합 개최(53회~)

-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 부여·공주 통합 개최
- 2007년(53회) : 관람객 126만명(문광부 지정 예비축제 선정)
- 2008년(54회) : 관람객 153만명(문광부 지정 우수축제 선정)
- 2009년(55회) : 신종플루 확산으로 행사 취소
 - 제례행사와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간소하게 개최
- 2010년(56회) : 세계대백제전, 정부공인 국제행사
 - 사업비 319억원, 행사기간 30일, 관람객 369만명, 경제효과 2,499억원
 - 수상공연, 황산벌전투 재현, 세계역사도시전 등 150개 프로그램
- 2011년(57회)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
 - 사업비 58억원, 행사기간 9일, 관람객 149만명, 경제효과 918억원
 - 공연·전시, 국제학술회의, 체험프로그램 등 74개 프로그램
- 2012년(58회) : 세계화 가능성 재확인
 - 한류의 원조 백제인 『味摩之』(일본에 기악무 전파)집중 조명
 - 사업비 57억원, 행사기간 9일, 관람객 153만명, 경제효과 952억원
- 2013년(59회) : 세계화전략 지속추진
 - 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 “금동대향로의 세계”
 - 사업비 59억원, 행사기간 9일, 관람객 159만명, 경제효과 1,079억원
- 2014년(60회) :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 위상 재확인
 - 60주년기념 “백제! 세계를 만나다. 流, 흥, 멋”
 - 사업비105억원, 행사기간 10일, 관람객 247만명, 경제효과 1,182억원
- 2015년(61회) : 60회를 마치고 새로운 60년을 도약
 - 주제 / 부제 :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 백제! 다시 태어나다
 - 사업비64억원, 행사기간 9일, 관람객 270만명, 경제효과 797억원

백제문화제 발전단계

도입단계 (1955~1965)	정착단계 (1966~1978)	발전단계 (1979~2006)	정착단계 (2007~현재)
부여 단독개최 제의적 성격	공주부여 동시개최 종합문화축제로 확대	공주부여 윤번개최 질적·양적 발전	공주부여 통합개최 백추위 설립·운영

3 조직개편과 예산의 변화

① 운영조직의 변화

■ 초기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처음부터 11회까지 부여 백제대제는 민간 중심 부여 단독 개최
- 제12회(1966)부터는 공주와 부여에서 동시에 개최(1979년부터 윤번제 개최)
 - 백제문화제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 충청남도지사, 부위원장 : 3명, 간사장 : 1명, 사무국장 : 공주군수 포함 2명, 그리고 총무, 선전, 기획, 진행, 재무, 서기의 5개 부분에서 간사
 - 총무분과위원회, 제전분과위원회, 예술분과위원회, 지도분과위원회, 선전분과위원회, 경비분과위원회의 6개 위원회를 구성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2007년 ~ 현재)

- 설립근거 :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조례 제3248호 : '07. 2. 20)
- 출연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공동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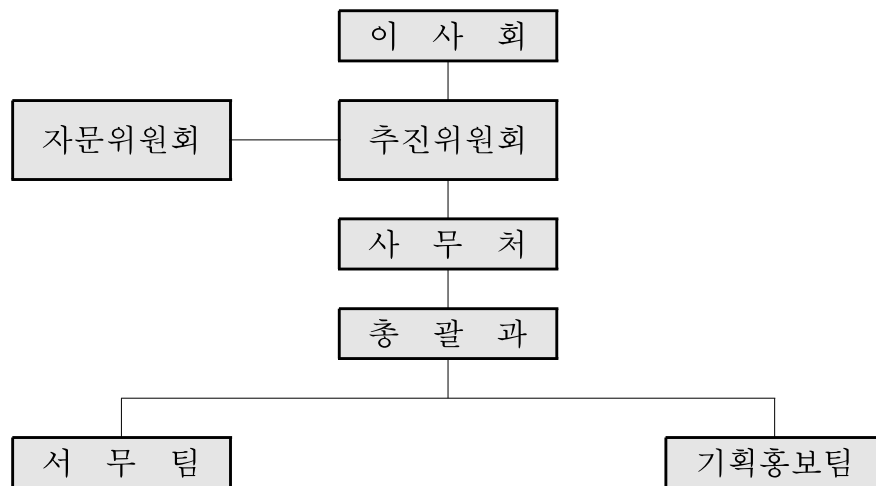
출 연 금	충청남도	공 주 시	부 여 군
100백만원	50	25	25

- 설립일자 : '07. 3. 26.(법인등기)
 - 이 사 장 : 오시덕(공주시장), 이용우(부여군수)
 - 추진위원장 : 최종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대학교수)
 - 소재지
 - '07. 3. 26 ~ '09. 3. 25 : 공주시 산성동 소재
 - '09. 3. 26 ~ '11. 1. 19 :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575(백제문화단지 內)
 - '11. 1. 19 ~ '13. 2. 25 : 공주시 금성동 191-2
 - '13. 2. 26 ~ 현 재 :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백제문화단지 內)
- ※ 2년마다 공주·부여 이전 조항 삭제(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15.12.7)

○ 기구 및 정원

- 기 구 : 1처, 1과, 2팀
- 정 원 : 9명(파견 공무원 6, 재단 계약직 3)
- 현 원 : 6명(파견 공무원 4, 재단 계약직 2) ※ '16.3.31현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조직도



- 연도별 정·현원

연도별 정·현원 현황

< '16. 3. 31현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월	7~12월							
정 원	17	22	26	52	52	22	23	18	17	14	9
현 원	17	22	26	48	48	15	12	13	14	9	6
증 감	0	0	0	△4	△4	△7	△11	△5	△3	△5	△3

※ '16년 파견(4명) : 道 1명(5급)/ 공주 2명(6급1, 7급1)/ 부여 1명(6급)

② 예산의 변화

■ 초기 예산의 변화

- 공주에서 개최된 제12회(1966)부터 제49회(2003)의 총 26회의 백제문화제 중 예산 편성과 지출내역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제13회, 제15회, 제23회, 제33회, 제35회, 제37회, 제39회, 제41회, 제43회, 제45회, 제47회, 제49회의 총 12회임. 이중 지원 예산이 새로이 편성되었거나 변화가 있었던 해를 기준으로 10년 주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7개년의 예산편성 아래 표와 지출항목 표를 비교함.
- 예산비와 수입

예산비와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1967년 (13회)	1977년 (23회)	1987년 (33회)	1997년 (43회)	1999년 (45회)	2001년 (47회)	2003년 (49회)
1	道費 보 조 금	500 (50)	2,500 (41.66)	8,500 (6.3)	250,000 (42.7)	250,000 (48.7)	200,000 (31.7)	180,000 (25)
2	군(시)비 보 조 금	200 (50)	3,500 (58.32)	60,000 (44.7)	300,000 (51.3)	253,000 (49.5)	423,000 (67)	520,000 (72.2)
3	지방담당	300 (30)	1 (0.02)	64,000 (47.7)				
4	문예진흥원 보 조 금			1,500 (1.1)	5,000 (0.9)	5,000 (0.9)	5,000 (0.8)	
5	한국관광공사 보 조 금				30,000 (5.1)			
6	국 고 보 조 금					3,000 (0.6)	3,000 (0.5)	20,000 (2.8)
합계		1,000	6,001	134,000	585,000	511,000	631,000	720,000

- 공주에서 백제문화제가 열린 제13회(1967)는 일백만원의 적은 예산이었고 제33회(1987)의 경우는 도비보조금이 6.3%에 불과하고 오히려 지방담당인 찬조금의 비중이 47.7%로 가장 많았음. 이때의 찬조금은 공주군 재경향우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제43회(1997)의 문예진흥원기금은 전국시조경창대회의 시상금이었고 한국관광공사 보조금은 해외홍보물제작비 천만원과 공사 및 서울신문행사지원금 2천만원임. 제45회(1999)의 시비보조금은 문화재예산 2억5천만원과 국고보조금 부담금 3백만원이고, 문예진흥원보조금은 문화관광부지정 전통문화행사 지원금임. 제47회(2001)의 시비보조금은 문화재예산 4억2천만원과 국고보조부담금 3백만원이고 제49회(2003)의 국고보조금은 우수축제지원보조금임.

○ 지출내역

지출내역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1967년 (13회)	1977년 (23회)	1987년 (33회)	1997년 (43회)	1999년 (45회)	2001년 (47회)	2003년 (49회)
1 행사비용 행사지원비	460 (46)	3,273 (54.6)	91,740 (68.5)	390,330 (66.7)	350,000 (68.5)	441,700 (70)	350,600 (48.7)
2 행사장시설 및 선전시설비	123 (12.3)	962 (16)	21,970 (16.4)	86,500 (14.8)	83,630 (16.4)	74,800 (11.8)	209,630 (29.1)
3 사무비	110 (11)	240 (4)	1,970 (1.5)	8,790 (1.5)	7,500 (1.5)	7,000 (1.1)	13,000 (1.8)
4 급량비		470 (7.8)	2,200 (1.6)	13,000 (2.2)	21,000 (4.1)	30,000 (4.8)	30,000 (4.2)
5 기 타	276 (27.6)	400 (6.7)					
6 홍보물인쇄비			3,100 (2.3)	23,500 (4)	21,000 (4.1)	23,990 (3.8)	39,000 (5.4)
7 귀빈접대비 홍보활동비 평가단운영비			6,500 (4.8)	23,400 (4)	13,000 (2.5)	30,000 (4.8)	40,000 (5.6)
8 예비비	31 (3.1)	656 (4.8)	6,520 (4.9)	39,480 (6.8)	14,900 (2.9)	23,510 (3.7)	37,770 (5.2)
합계	1,000	6,001	134,000	585,000	511,000	631,000	720,000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예산 변화(2007년 ~ 현재)

- 2007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예산변화는 2010년 세계대백제전에 318억원, 2015년 60회에 105억원, 2009년에 90억원이며, 그 이외에는 5~60억원의 예산으로 개최함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예산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마사회	세계화 기 금	기타 후원금
합 계	86,556	3,800	24,550	34,004	845	4,530	18,827
2007년	5,215	0	2,350	2,350			515
2008년	9,021	0	4,000	4,200		15	806
2010년	31,869	3,000	7,000	10,040			11,829
2011년	5,773		2,000	2,000	113		1,660
2012년	5,710		2,000	2,000	193		1,517
2013년	5,909		2,000	2,000	69	515	1,325
2014년	10,519		3,000	3,000	200	4,000	319
2015년	6,740		2,000	4,414	70		256
2016년	5,800	800	200	4,000	200		600

※ 법인 자본금 : 100백만원(도 50, 공주시 25, 부여군 25)

※ 세계화 기금적립액 : 55억원

4 행사의 기간과 내용의 변화

① 행사시기 및 기간

■ 초기 행사시기와 기간

- 공주에서 거행된 백제문화제의 개막일과 개최요일 그리고 개최기간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공주에서 개최된 백제문화제의 개막일(전야제 포함)의 현황은 <표 4>와 같음.
- 백제문화제 중 공주와 부여의 윤번제로 바뀌는 제25회(1979)의 백제문화제는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백제문화제의 10월 개최일시의 선정은 문주왕이 공주로의 천도가 10월 상순경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 역사성에 근거하여 10월 상순으로 고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초기 백제문화제 개최시기

구분 개막일	횟수(회)	비율(%)	해당시기
10월6일-10월10일	7	33.3	제12회, 제14회, 제39회, 제41회, 제43회, 제45회, 제49회
10월11일-10월20일	11	52.4	제13회, 제17회, 제18회, 제20회, 제21회, 제22회, 제23회, 제29회, 제31회, 제37회, 제47회
10월21일-10월30일	3	14.3	제15회, 제24회, 제25회
합계	21	100	

- 공주에서 개최된 백제문화제 개최기간의 요일(전야제포함)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축제기간은 3일이 47.6%로 가장 많았고 공주에서 두 번째 열린 제13회(1967)는 2일의 짧은 일정이었고 제22회(1976)의 백제문화제는 5일이나 열렸음.

백제문화제 개최기간

구분 개최기간	횟수(회)	비율(%)	해당시기
2일	1	4.8	제13회
3일	10	47.6	제14회, 제17회, 제18회, 제20회, 제21회, 제25회, 제39회, 제43회, 제45회, 제47회
4일	9	42.8	제12회, 제15회, 제23회, 제24회, 제29회, 제31회, 제37회, 제41회, 제49회
5일	1	4.8	제22회
합계	21	100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행사시기 및 기간 변화(2007년 ~ 현재)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이 후 행사시기는 과거와는 다르게 대부분 9월말에서 10월 초에 개최되었음.
- 그리고, 행사의 개최 일정은 2007년 5일과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30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일이고, 2008년과 2014년에 10일간 개최되어 과거에 비하여 일정이 4~5일이 증가하였음.

추진위원회 설립 후 백제문화제 개최시기와 기간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제53회	제54회	제55회 Pre	제56회 세계대백제전	제57회	제58회	제59회	제60회	제61회
개막식	공주시	부여군	-	부여군	공주시	부여군	공주시	부여군	공주시
행사 기간	10.11(木) ~10.15(月), 5일	10.03(金) ~10.12(日) 10일	10.09(金) ~10.18(日) ※산중플루 행사취소	09.18(土) ~10.17(日) 30일	10.01(土) ~10.09(日) 9일	09.29(土) ~10.07(日) 9일	09.28(土) ~10.06(日) 9일	09.26(金) ~10.05(日) 10일	09.26(土) ~10.04(日) 9일

② 행사내용 및 종류

■ 초기 행사내용과 종류

- ◎ 공주 · 부여 동시 개최기 : 제12회(1966년)-제24회(1978년)

- 제11회(1965) 부여에서의 마지막 단독개최기의 행사 종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제11회 백제문화제 행사일람표

일 시	1965. 10. 8 - 10. 10
장 소	부여읍 일원
행사종목	19종목
행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의 : 삼충제, 궁녀제, 별신굿 - 민속놀이 : 농악대회, 그네대회, 궁도대회, 씨름대회, 관등선 띄우기, 불꽃놀이 - 문학·예술·체육 : 시조대회, 백일장, 종합예술제, 체육대회 - 기 타 : 백제공주 선발대회, 가장행렬, 등화행렬, 삼천궁녀사당기공식, 계백 장군 동상 기공식, 가로등 점화식

- 이 때의 행사 종목을 보면 백제원혼에 대한 제의를 제외한다면 백제문화제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별다른 행사가 없는 일종의 문화예술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소박한 지역행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제12회(1966)부터의 백제문화제는 공주와 부여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음. 제12회 백제문화제를 공주에서 개최하면서 공주의 백제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백제문화제에 즈음’하여라는 고대 일본문화의 개척자로서 그리고 신라 문화에 영향을 끼친 백제문화의 위상을 확인하는 행사 준비와 실행에 노력을 기울였음.
-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비하여 제12회(1966)에서의 행사종목은 부여의 삼충제나 궁녀제와 더불어 공주의 백제5대왕(문주, 삼금, 동성, 무령, 성왕) 추모제와 고흥박사추모제(제13회 이후는 문주왕추모제로 제17회 이후는 백제중흥4왕 추모제로 변경)를 제외하고는 백제문화 관련의 행사라기보다는 민속·예술·체육대회의 지역적 성격의 행사 위주로 되어 있었음.
- 이는 이후 공주에서 열린 24회(1978)까지 이러한 체육대회를 포함하는 지역주민위주의 성격이 강한 행사로 열렸음. 이 시기 백제관련 문화행사로는 1971년의 무령왕릉 유물특별전시회가 박물관에서 열렸고 백제문화학술 대강연회가 열리고 “백제의 밤”이라 하여 시와 문학, 음악과 무용의 밤이 열렸음. 제21회에는 백제천도 1500주년 기념 백제문화연구 심포지엄이 열리면서 이후 제22회, 제23회, 제24회에서도 백제문화사 학술 강연회를 개최하였음.

◎ 공주 · 부여 윤번제 개최기 : 제25회(1979년) - 2006년

- 공주와 부여에서 윤번제로 열리기 시작한 제25회(1979) 이후의 백제문화제는 예산의 지원과 더불어 행사종목이 전 시기에 비하여 증가하는데 제25회(1979) 부터 제39회(1993)백제문화제 행사종목의 수와 행사 종목 분류는 다음 표와 같음.

행사 종목 분류(제25회-제39회)

(단위 : 종목,%)

구분 \ 년도	1979 (제25회)	1981 (제27회)	1983 (제29회)	1985 (제31회)	1987 (제33회)	1989 (제35회)	1991 (제37회)	1993 (제39회)
축 제	4 (5.8)	4 (5.4)	4 (4.8)	4 (3.8)	4 (3.9)	4 (4.1)	3 (3.6)	3 (3.9)
제 전	5 (7.3)	4 (5.4)	4 (4.8)	4 (3.8)	4 (3.9)	4 (4.1)	4 (4.7)	4 (5.3)
예 술	17 (24.6)	19 (25.7)	22 (26.5)	35 (33.7)	40 (39.2)	36 (36.7)	32 (38.1)	25 (32.9)
전통문화	43 (62.3)	47 (63.5)	53 (63.9)	61 (58.7)	54 (53.1)	53 (54.1)	45 (53.6)	44 (57.9)
계	69 (100)	74 (100)	83 (100)	104 (100)	102 (100)	98 (100)	84 (100)	76 (100)

- 공주와 부여로의 윤번제 실시는 보다 많은 준비기간을 확보함으로써 행사의 양적 · 질적 측면에서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음. 백제문화제의 행사 종목도 종전의 20여 종목에서 공주는 70-100여종에 달하는 행사가 거행되었음.

행사 종목 분류(제41회 - 제49회)

(단위 : 종목,%)

구분 \ 년도	1995 (제41회)	1997 (제43회)	1999 (제45회)	2001 (제47회)	2003 (제49회)	평균
축전행사	3 (3.3)	4 (6.8)	8 (9.5)	5 (5.6)	4 (4.6)	4.2 (4.9)
제전행사	13 (14.3)	10 (16.9)	13 (15.5)	11 (12.2)	8 (9.3)	6.8 (8.1)
민속행사	47 (51.6)	28 (47.5)	34 (40.5)	42 (46.7)	44 (51.2)	45.8 (54.3)
예술행사	27 (29.7)	16 (27.1)	28 (33.3)	31 (34.3)	29 (33.7)	27.5 (32.7)
학술행사	1 (1.1)	1 (1.7)	1 (1.2)	1 (1.1)	1 (1.2)	1 (1.2)
계	91 (100)	59 (100)	84 (100)	90 (100)	86 (100)	84.3 (100)

- 이러한 규모의 확대는 특히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문화상품으로 선정되어 행정과 재정적 지원의 확대로 이어짐. 제41회(1995)부터 제49회(2003)의 백제문화제의 행사종목의 분류는 앞의 표와 같음.
- 공주와 부여의 윤번제 개최기에서의 평균행사 수는 약 84종목으로 처음 공주에서 백제문화제가 열린 제12회의 15종목에 비하면 약 5.6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매회 단순한 행사규모의 확대보다는 백제문화에 걸맞는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신설 종목을 추가하였음.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행사시기 및 기간 변화(2007년 ~ 현재)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이 후 행사 종목은 2009년과 2010년 프리 및 세계대백제전의 150~160개를 제외하고는 100여개의 종목으로 기존의 백제문화제보다 20여개의 행사 종목이 증가하였음.

추진위원회 설립 이 후 행사 종목

연도별		2007년 제53회	2008년 제54회	2009년 제55회 Pre	2010년 제56회 세계대백제전	2011년 제57회	2012년 제58회	2013년 제59회	2014년 제60회	2015년 제61회
개막식		공주시	부여군	-	부여군	공주시	부여군	공주시	부여군	공주시
주제		700년 대백제 의꿈	좌동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백제! 새틀만다	좌동
부제		-	교류왕국 700년 대백제	-	-	강강의 꿈! 무령왕의 부활	백제의 춤과음악, 마미지의 부활	금동 대향로의 세계	流, 흥, 멋	백제 다시다
프로그램 (개)	계	52	102	160	150	74	95	102	106	114
	추진위	10	14	26	42	10	12	18	19	3
	공주	21	42	68	54	32	41	45	42	52
	부여	21	46	66	54	32	42	39	41	59

2.

백제문화제 개최 현황과 발전 과제

① 과거 백제문화제와 공주·부여 개최 특성 비교

① 2004년 부여 백제문화제 개최 현황

■ 행사개요

- 행사명 : - 국문 : 제50회 백제문화제
- 영문 : The Baekje Cultural Festival
- 주제 : 백제와의 유쾌한 대화
- 슬로건 : 함께 누리는 백제문화
- 행사일시 : 2004년 10월 8일 ~ 10월 11일 (4일간)
- 행사장소 : 부여 구드래 백마강변·부여일원
- 행사종목 : 8개 분야 38종목
- 주최 :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 주관 : 부여문화원
- 후원 : 문화관광부·충청남도·부여군·한국관광공사
- 소요예산 : 8억원 (국비 2천만원,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6억원)

■ 행사목표와 추진방향

- 소재 50회 백제문화제의 목표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재조명으로 고도위상 확립,
위대한 백제 선인의 열과 슬기를 계승발전”
- 제 50회 백제문화제의 추진 방향
 - 백제문화의 정체성 확보로 세계화
 - 행사종목의 단순화, 반복화, 차별화
 - 역사문화 참여체험 축제로 특성화
 - 전통 민속 및 각종 공연의 내실화
 -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로 효과의 극대화
 - 축제기반 구축 및 객관적 평가로 성숙화

- ▶ 전국 제일의 역사 문화 축제로 도약

■ 제50회 백제문화제의 행사내용

① 백제역사문화 테마화를 통한 정체성 확보

- 백제역사 문화행렬 등 반복공연 시도
- 계백장군 출정식, 백제부흥운동 등 재현종목 집중개발
- 백제문화제 50주년 의미 집중부각

② 행사종목의 단순·대형·반복화

- 양적인 종목, 백제문화와 차별된 형식적 행사 배제
- 백제문화 특성을 살린 주력종목의 대형 이벤트·반복화

③ 백제문화 참여·체험형 축제화

- 최근 추세에 부합하는 참여·체험형 축제로의 전환
(예시) 백제역사 퀴즈왕 선발대회, 백제대왕행차 체험, 백제의상 입어보기, 백제
가마 굽기체험, 백제토기 만들기, 백제문양 탁본뜨기, 짚·풀 문화체험 등
- 반복공연 운영, 여유시간에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행사장 모습



④ 축제 인프라 구축

- 주민, 관광객 위주의 편의시설 강화
(예시) 관광안내, 환경·위생시설, 편의시설, 도로, 교통 등

⑤ 전통민속의 표면·내실화

- 형식적인 국내·외 자매도시 및 백제권 지자체 공연참여 배제
- 부여만이 갖고있는 전통민속의 체계적 시연강화
(예시)용정리호상놀이, 내지리단잡기, 세도산유화가, 두레풍장 등

⑥ 축제의 주체전환으로 애향문화제 지향

- 기관, 단체의 해계모니적 갈등이 아닌 군민이 축제의 주체로 인식
(예시)군민, 출향인사 자율참여 : 행사안내, 질서유지, 청소 등 자원봉사제 운영

⑦ 집중적인 홍보역량 및 투자강화

- 중앙방송 3사 및 지역방송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 스포츠홍보, 스크롤, 브릿지 홍보
 - 공개방송 등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
- 인터넷 등 정보통신과 언론을 최대한 활용한 홍보강화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중앙, 지역언론, 생활정보지 등
- 지역출향인사 등을 활용한 백제문화부각
 - 부여출신 연예인 등을 통한 홍보
 - 백제문화제 홍보대사 위촉으로 효과 극대화
 - 각종 행사시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모객효과 극대화
- 팸플릿, 리플릿, 포스터 등의 효과적인 제작배포

⑧ 객관적 평가를 통한 발전적인 방향설정

- 행사의 분석방법 체계화 (외국인, 외래관광객, 지역주민, 남·여 등)
- 축제의 특징과 문제점의 현실적 제시
- 백제문화제 본연의 기능과약으로 다양한 제시
- 축제이면의 문화현상, 사회변동의 평가

■ 행사의 신설 및 폐지종목과 일정별 추진내용

○ 신설 및 폐지종목

분야별	신 설 종 목	폐 지 종 목	보 완 종 목
역사재현 제·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 대왕 행차(반복프로그램) ◦ 계백장군 출정식 ◦ 계백장군 출정행렬(반복프로그램) ◦ 백제 부흥운동 ◦ 백제기악 재현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비정도 경축 사신행렬 ◦ 백제무사 선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비정도 축제 → 공개방송 추가보완 ◦ 백제역사 문화 행렬 → 규모축소 보완(재구성) 및 반복운영
전통민속 문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제 시조 경창대회 ◦ 백제 씨름왕 선발대회 ◦ 충남 농악 경연대회 ◦ 전국 웅변 대회 ◦ 부여 서예 협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자매도시 및 지자체초청공연 → 민속공연으로 (종목축소)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제 50주년 학술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정신 국제학술 강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 학술세미나 (백제기악복원)
축 제 체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국악 의장대 공연 ◦ 가야금 병창 ◦ 김덕수 사물놀이 ◦ 백제문화제 반세기 전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하쇼 (음악회) → 공개방송으로 전환 (홍보효과 극대화) ◦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 일정별 행사 추진내용

분야별	행 사 종 목
1. 제 전 (7)	① 백제 혼불채화 ② 충화 팔충제 ③ 삼산제 ④ 백제 대왕제 ⑤ 삼충제 ⑥ 궁녀제 ⑦ 백제 오천결사대 충혼제
2. 역사재현 (7)	① 백제 역사문화행렬 ② 백제 성왕사비정도축제 ③ 백제기악재현 ④ 계백장군출정식 ⑤ 백제부흥운동 ⑥ 백제 대왕행차(반복 프로그램) ⑦ 계백장군출정행렬(반복 프로그램)
3. 전통민속 (6)	① 부여 전통 민속공연(6종목) ② 부여군 충남 국악단 공연 ③ 신평 민속예술단 공연 ④ 국립 국악원 초청공연 ⑤ 국악 한마당잔치 (청소년음악회) ⑥ 설장고
4. 불 전(1)	① 수록재
5. 학 술(2)	① 백제문화제 50주년 학술세미나(축제) ② 백제기악 학술세미나
6. 문화예술 (7)	① 경찰종합학교 경찰악대공연 ② 천안시 충남 국악 관현악단 공연 ③ 연예인초청 백마강변 음악회(공개방송) ④ 국방부 국악 의장대 공연 ⑤ 50주년 기념 노래자랑 ⑥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연극 ⑦ 대만 고웅시 국악단 공연
7. 체 험 (6)	① 백제역사 퀴즈왕 선발대회 (행사장, 체험장) ② 전국 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 ③ 백제문화제 반세기 전시전 ④ 백제 토기 가마굽기·열기재현 ⑤ 백제문화 체험장 운영 ⑥ 부여특산품 전시판매장
8. 기 타(2)	① 개막식 ② 폐막식

②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개최 특성 비교

■ 주요 프로그램 비교

- 백제문화제가 격년제로 개최되는 공주와 부여의 행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3년 공주 백제문화제와 2004년 부여 백제문화제 축제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간접적인 비교를 하였음.

공주와 부여 백제문화제 행사프로그램 비교

분류	연도(장소)별 주요 프로그램	
	49회 백제문화제(공주)	50회 백제문화제(부여)
제례	백제혼불채화 및 점화, 백제중흥4왕 추모제	충화팔충제, 삼산제, 백제대왕제, 수륙제, 백제혼불채화 및 봉송, 삼충제, 궁녀제, 백제오천결사대충혼제
공연	교향악의 밤, 중요무형문화재공연,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연정국악원국악한마당, 무령왕즉위식, 유학자의 우리춤 한마당, 백제가곡의 밤, 불전축제의 밤, 아시아1인극제 추천작품공연, 요사고이춤, 지게놀이, 웅진문화제, 공주민요, 박동진추모판소리, 자매결연도시공연, 중국과 일본교류공연, 왕도터닭기굿놀이	경찰종합학교 경찰악대,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신평민속예술단, 연예인초청 백마강변음악회, 육군국악의장대, 국립국악원, 백제기악, 50주년기념노래자랑,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연극, 국악한마당잔치 및 청소년음악회, 내지리단잡기, 백제부흥운동, 은산별신제, 용정리호상놀이, 세도장군제, 세도두레풍장, 부여군충남국악단
행렬	역사대행렬	백제대왕행차(1,2), 백제역사문화행렬, 계백장군출정식 및 출정행렬(1,2)
전시 판매	의상소품전, 백제문화제사진전, 우리고장 농산물/특산물, 야외시화전, 수석전	부여특산품전시판매장, 백제문화제반세기전시전
경연	전국시조경창대회, 전국궁도대회, 충남풍물놀이경연대회	백제토기물레경연, 백제역사퀴즈왕선발
체험	백제체험마당, 향음주례, 다도, 백제토기, 가마타기, 활쏘기, 대장간, 어린이백제나라(백제왕행차, 백제왕비, 장애물넘기, 성밟기, 역사그림판 맞추기, 소달구지, 전통놀이)	고뜨기, 백제문화재스탬프찍기, 짚풀문화체험, 목장승각기, 백제성쌓기
기획	서막식, 공산성의 결투, 동성왕연회재현(백제패션쇼), 폐막식, 공주예술제, 공산성 금강교 점등식, 백제문화반세기학술세미나, 추억의 금강나룻배 재현	백제토기가마굽기재현식, 백제성왕사비정도축제, 개막식, 백제기악학술세미나, 백제토기가마열기, 폐막식, 백제문화제 50년기념학술세미나, 고전영화상영

자료 : 공주시(2003), 축제홈페이지 및 종합계획서, 부여군(2004), 축제홈페이지

■ 프로그램별 선호연령계층별 비교

- 공주의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을 다음 표와 같이 예상되는 선호연령계층별로 분류해 보았음. 일부 체험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장년 및 노년층들이 선호하는 관람형으로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현재 공주 및 부여에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는 다분히 지역축제적인 속성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로서 탈바꿈하려면 기존 프로그램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오락성(물론 교육적 효과가 내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임.
- 덧붙여 공주시와 부여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백제문화제 특화전략도 강구해야함. 예컨대 공주의 백제문화제가 백제문화의 중흥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여의 백제문화제는 백제의 얼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차별화를 꾀해야 함.

제 49회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연별계층별 선호도 비교

명칭	성격	주요 대상	선호연령계층(추정)			
			~10대	20~30대	40~50대	60대~
백제혼불 채화 및 점화/백제중흥사왕 추모제	제례	주민			○	○
서막식/역사대행렬/동성왕연회재현/무령왕즉위식/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교향악의밤/송파구공연/충남풍장경연대회/지게놀이/우리춤한마당/중국예술단/아시아1인극추천작품/일본교류공연/백제가곡의밤/불전축제의밤/관등선풍우기/연정국악원국악한마당/공주의 민요/축하비행/불꽃놀이/박동진추모판소리/중요무형문화제	공연	전체		○	○	○
왕도터담기/공산성·금강조명점등/웅진문학제/폐막식		주민			○	○
백제체험(왕비/장군/병사/의상/활쏘기)	상설 체험	전체	○	○	○	○
전통정신문화(향음주례/다도/도자기) 전통문화의흥미(가마/대장간/혁필가) 어린이백제나라 (백제왕행차/그림판맞추기/백제의상/왕비를찾아라/장애물넘기/유물만들기/성밟기/튀밥/소달구지/전통놀이 등)		전체	○			
의상소품전/사진전/시화전	전시	전체		○	○	○
백제문화제학술세미나 전국궁도대회/전국시조경창대회	기획	관계자			○	○

자료 : 공주시(2003), 축제홈페이지 및 종합계획서.

②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 현황 분석

① 행사개요와 개최방향

■ 행사개요

- 개최배경
 - 1400년간 역사 속에 묻혔던 대백제국의 개척정신과 찬란한 문화의 가치를 되살리고, 백제문화제를 세계화 하고자 추진
 - ⇒ 올바른 ‘백제史 재정립’을 통해 왜곡된 역사의식 바로잡는 기회
- 기 간 : 2010. 9. 18 ~ 10. 17(30일간) ※개막식 9. 17(金)
- 장 소 : 충남 공주, 부여(16개 시·군 참여)
- 주 최 :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 주 관 : 2010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
- 주 제 :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 회장규모 : 754천㎡
 - 공주 행사장 : 308천㎡(예술마당 72, 수상공연장 47, 공산성및금강둔치 189)
 - 부여 행사장 : 446천㎡(문화단지 330, 수상공연장 48, 구드래 68)
- 내 용 : 공연·전시·이벤트, 체험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 관람객수 : 369만명(日 평균 12, 日 최대 22)
 - 내국인 349만명, - 외국인 20만명
- 해외참가 : 54개국(역사도시전시, 해외예술단, 학술회의)
- 총사업비 : 240억원(국비 30, 지방비 170, 기타 40)

■ 행사방향과 목표

- 700년 대백제 문화강국의 가치와 진면목을 재발견하는 축제
- 해양교류왕국 대백제의 기상을 오늘에 잇는 창의적인 축제
- 대백제국의 후예로서 충청남도의 위상을 세계에 선양하는 축제
- 소비성 축제에서 생산성 있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
- 백제 콘텐츠를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콘텐츠로 개발 활용

백제문화의 세계화명품화를 위한 “글로벌 백제”의 새로운 출발점

②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내용 분석

■ 세계대백제전의 백제문화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 세계대백제전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기억프로, 흥미프로, 교육프로, 주제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백제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연의 고급화 전략을 시도한 수상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으며, 문화역사 교육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 역시 만족도가 높게 분석됨.
- 각 프로그램에 대한 백제문화 관련 만족도의 분석에서 공주의 사마이야기와 부여의 사비미르 수상공연 프로그램은 수변을 활용한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공연의 고급화 전략을 시도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특히 주간에 한계를 야간 고급공연으로 극복하여 야간 관광상품의 개발을 보여 준 사례라 할 수 있음.



2010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사마이야기(공주)

2010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사비미르(부여)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 특히, 백제문화와 관련된 수상공연에서 금강변을 중심으로 공주 사마이야기와 부여의 사비미르 두 개의 수상공연이 매력 포인트로 부각되었다. 나아가 중국 계림에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인상유삼저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강과 백제역사를 소재로 스펙터클한 공연을 강변, 수상을 배경으로 실시한 것 또한 이례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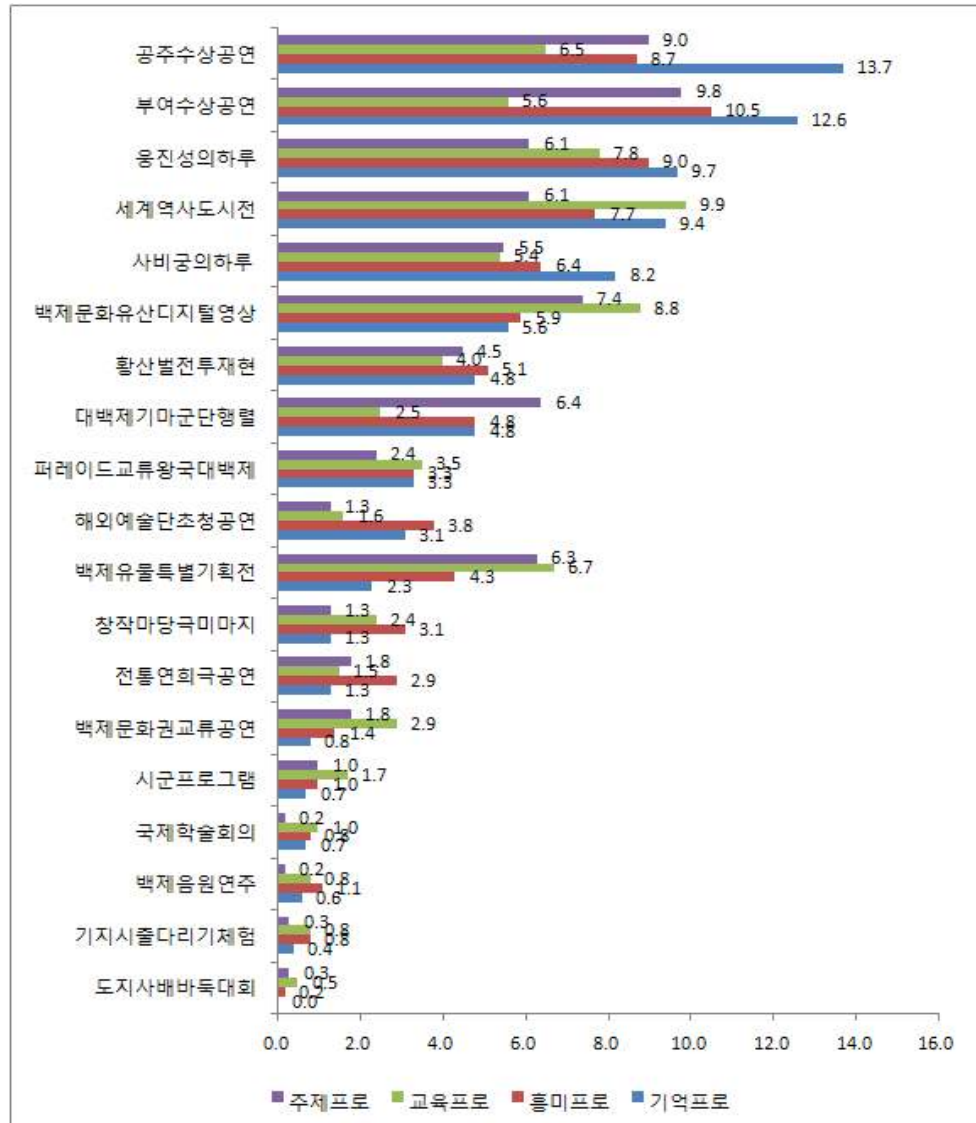
2010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분석

(단위 : 7점척도)

공연명	객석점유율	만족도 (7점척도)	거주지(%)
공주 사마이야기	88%	6.66	공주 52.7, 대전 24.1, 충청 9.4
부여 사비미르	95%	6.50	부여 67.5, 충청 11.9, 대전 9.9

- 백제문화를 주제로한 공주 사마이야기는 총 객석점유율 88%를 달성하였으며 수상공연 프로그램의 만족도에서 7점만점 중 6.66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부여 사비미르는 객석점유율 95%를 달성하였으며, 7점만점 중 6.50의 만족도로 분석되어 수상공연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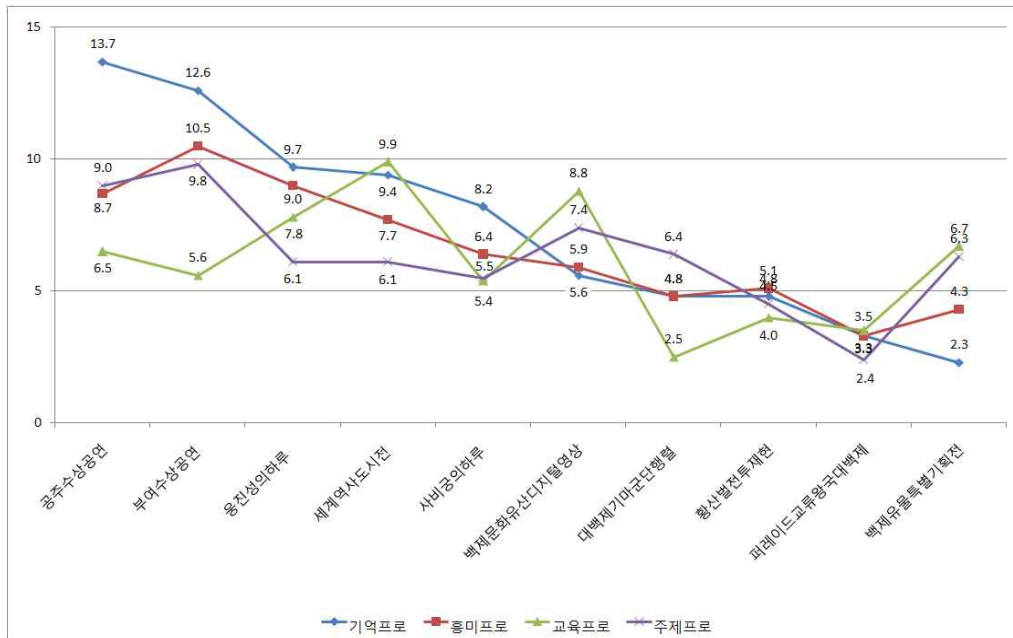
2010 세계대백제전 각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주 : 7점만점 척도

- 세계대백제전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기억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백제유산을 주제로 하는 공주수상공연(사마이야기)이 13.7%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부여수상공연(사비미르)은 흥미로운 프로그램에서 10.5%, 주제반영 프로그램에서 9.8%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2010 세계대백제전 주요 프로그램 분석



주 : 7점만점 척도

■ 세계대백제전을 통한 백제문화의 이해도

- 2010 세계대백제전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백제 문화의 이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평균 4.73으로 분석되었음. 세계대백제전은 백제유산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백제의 문화에 대해 알린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연프로그램 및 전시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백제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 느끼고 체험을 통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및 학생층 방문객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보던 백제역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고마나루예술마당의 경우 웅진성의 하루를 통해 백제의 정원을 연출하였으며, 세계역사도시전을 통해 세계역사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해설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상영은 백제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백제문화 전성기인 무령왕~성왕~위덕왕 시대가 조망되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였으며, 공주박물관과 무령왕릉을 무료로 개방하는 동시에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공주지역의 백제문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세계대백제전을 통한 백제문화의 이해도 분석

(전체평균 : 4.73점)

7점척도 조사내용	빈도 (명)	비율 (%)
전 혀 아 니 다. (1)	16	1.6
아 니 다. (2)	36	3.6
약 간 아 니 다. (3)	106	10.7
보 통 이 다. (4)	283	28.6
약 간 그 령 다. (5)	233	23.6
그 령 다. (6)	230	23.3
매 우 그 령 다. (7)	85	8.6
합 계	989	100

- 부여의 경우 백제문화단지를 통해 사비궁의 하루 프로그램으로 백제시대 왕궁의 일상을 엿보며 사비 백제시대 문화역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문화단지 내에서 펼쳐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백제왕의 역사 문화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

백제문화단지 백제체험프로그램 운영



2010 세계대백제전 부여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 백제체험장

- 또한 구드래와 왕홍사지에서는 백제 역사체험과 大백제기마군단행렬, 백제대왕 행차재현, 계백장군 열무식 등 공연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백제유물 특별전을 병행 실시하였던 것으로 조사됨.\

세계대백제전 부여 백제역사문화행렬



- 특히 공주에서 실시된 사마이야기와 부여에서 실시된 사비미르 공연프로그램의 경우 대형 수상공연으로 사마이야기는 사마가 백제를 중흥시키고 해상강국과 영토확장을 이룩한 이야기를 펼쳤으며, 사비미르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의 힘과 백제인의 애절한 염원으로 새로운 사비 백제의 부활을 알리는 공연을 통해 백제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인 사례라 할 수 있음.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③ 2015백제문화제 개최 결과와 62회 계획 분석

① 2015 백제문화제 개최 결과

■ 행사개요

- 기 간 : 2015. 9. 26(토) ~ 10. 4(일), 9일간
- 장 소 : 부여군·공주시 일원
- 주 제 : “백제! 다시 태어나다.
- 내 용 : 공연·전시, 국제학술회의, 체험프로그램 등
- 프로그램 : 120개(추진위 3, 부여군 52, 공주시 59, 문화단지 6)
- 사 업 비 : 67.4억원
 - 도 20, 시·군 39.2, 한화 3, 마사회 0.7, 기타 4.5
- 관람목표 : 130만명

■ 성과분석

- 관람객 유치 : 270만명(당초목표 130만명의 207% 달성)

- 공주시 150만명 / 부여군 120만명
- 수익사업 : 386백만원
 - 후원 : 한화 300백만원, 마사회 70백만원, 기타 16백만원
- 지역경제 파급효과(잠정) : 796억원
 - ⇒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로의 위상 재확인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약세 및 프로그램의 반복성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연계프로그램 개발
 - 먹거리, 살거리 등의 정비 및 개발 필요

② 2016년 제62회 백제문화제 기본계획

■ 행사개관

◎ 행사개요

- 때 · 곳 : 2016. 9. 24(土) ~ 10. 2(日) [9일간] / 공주·부여 일원
 - ※ 개막식 : 부여군(9.24), 폐막식 : 공주시(10.2)
- 주 제 : 백제! 세계를 품다
 - 세계유산 등재 축하 및 백제문화제의 세계화
 - 백제문화의 우수성 및 포용성 부각
- 사업비 : 58억원(도비 10, 시군비 40, 기타 8)
 - ※ 제56회(대백제전) 319억, 제57회('11년) 58억, 제58회('12년) 57억,
제59회('13년)59억, 제60회('14년) 105억, 제61회('15년) 67억
- 관람객 : 130만명 목표(내국인 127, 외국인 3)

◎ 추진방향

- 백제문화의 특성이 살아있는 축제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관련 프로그램 연계 및 개발
 - 백제문화를 테마로 하는 대표프로그램 발굴 및 개최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공모참여형 이벤트 개최
- 유사 프로그램 통합 및 차별화
 - 합동제례 추진 및 청소년 관련 (가요제, 캠프 등) 프로그램 통합운영

-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회의 시 프로그램 선별 심사추진
- 관람객 참여형 거리퍼레이드 확대 및 경영이벤트 강화
 - 행사기간 중 매일 볼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추진위원회와 시·군 역할분담

- 추진위 : 개·폐막식(연출 및 의전)/시·군 조정
 - 대외 홍보, 수익사업 발굴, 민간지원 프로그램 등
- 시·군 : 전통 제례,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공 주) : 웅진성퍼레이드, 백제등불 향연, 백제마을 운연 등
 - (부 여) : 백제역사문화 행렬, 백제성왕사비천도 및 정도 고유제, 신명의 거리 운영 등

구 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공주시 · 부여군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폐막식(연출 및 의전) ○ 시·군 프로그램 조정 ○ 민간부분 참여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폐막식 주무대 운영 ○ 백제문화제 대표 프로그램 운영 ○ 제례 등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황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 청소 및 화장실 운영 ○ 편의시설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내소, 의료지원시설 등 ○ 시설물 안전 및 교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시설 등 ○ 잡상인 대책 및 행사장 경호 ○ 행사장 기반시설 ○ 관람객 안전보험 가입
홍보 및 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센터 운영 ○ 홍보영상, 리플릿 등 제작배부 ○ 수도권 등 옥외광고 ○ 협력방송사 선정 ○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홍보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깃발, 홍보탑 등 ○ 축제현장 방문 관광객 유치 등 ○ 숙박시설, 음식점소 수용대책
수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후원(협찬)사업 유치 ○ 상품화 사업(기념품) ○ 민간참여방안 수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후원사업 유치 ○ 임대사업 및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 행사 프로그램 구성

◎ 구상 및 내용

- 기본구상 : 역사문화 + 「에듀 페스티벌」
- 주요내용
 - 역사문화·교육·다양성·흥미와 재미를 기본 컨셉으로 경연 + 융화 + 어울림

으로 만들어 가는 「百濟」로 구성

◎ 추진위원회 주요 프로그램

① 개막식(안)

- 때 · 곳 : 2016. 9. 24(토), 18:00~20:00 부여 주무대
- 공연주제 : 동화백제
- 참 석 : 20,000여명(국·내외 주요인사, 지역주민 등)
- 내 용 : 식전행사→공식행사→식후행사(축하공연, 불꽃축제)

② 폐막식(안)

- 때 · 곳 : 2016.10.2(日), 18:00~20:00 공주 주무대
- 공연주제 : 백제 다시 서다 !
- 참 석 : 10,000여명(국·내외 주요인사, 지역주민 등)
- 내 용 : 식전행사→공식행사→식후행사(축하공연, 불꽃놀이)

③ 해외 및 자치단체간 교류

- 왓소 축제 추진위, 백제교류협회 등 국제교류 지속
- 타 자치단체와의 프로그램 연계, 참여, 지원 등 상호교류

◎ 공주시 주요 프로그램

① 웅진성 퍼레이드

- 8개, 읍·면·동 및 시민(관광객) 참여 화합퍼레이드
- 중동초교~중동사거리~구터미널(1.0km)
⇒ 백제의 정신(힘)을 바탕으로 역동성과 흥미를 더한 행진

② 백제등불 향연(유등)

- 해상왕국과 웅진천도 475년 축하상징 및 테마 등 제작 설치
⇒ 황포돛배 유등 475척(신규 85척), 테마 나룻배 6척 등
- 공산성 야경, 금강교 루미나리에와 연계한 화려한 빛 연출

③ 백제마을 「고마촌」

- 송산리 및 수촌리고분군 출토유물 활용백제마을 조성 운영
-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희망등터널, 수문병, 사신도, 유등 설치 및 프린지 공연

◎ 부여군 주요 프로그램

① 백제역사문화 행렬

-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대형 퍼레이드로 재현

⇒ 삼신행렬, 기치단, 백제왕·왕비행차, 중앙관직, 북행렬 등

- 움직이는 역사책, 관람객이 참여하고 즐기는 퍼레이드 연출

② 백제 사비정도 고유제

- 사비백제(123년)의 번영과 영광을 기리고 백제문화제 개막을 고하는 의식

③ 백제인 대동 행렬

- 부여군 16개 읍·면에 전설, 설화, 특산물을 소재로 제작된 조형물과 백제 탈, 백제의상이 어우러지는 퍼레이드 연출

◎ 공주시·부여군 기획 프로그램

① 세계유산 등재 기념 프로그램

- 백제 城 밟기, 플래쉬 몼 「난장」 등 프로그램 기획
- 공산성 배경 금강 수상무대에서 「실경 뮤지컬 공연」
- 백제궁중기악 공연」으로 볼거리 제공 및 문화유산 홍보 등

②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 백제음식 경진대회 및 백제신춘 공모전 등
- 무령왕·왕비 선발대회 및 백제나라 창작동요 대회 등

◎ 행사준비 로드맵 램

행 사 명	월별 추진 일정표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본계획 확정											
실행계획 수립											
프로그램 보고회											
유관기관 협조											
각 분야별 자문 및 협조											
자원봉사단 구성											
매체별 홍보활동											
개·폐막식 준비											
프로그램별 리허설											

■ 예산계획

◎ 2016년 예산현황('16.3.31 현재)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1회추경	본예산	증 감	비 고
총 예 산	5,800,316	5,320,000	480,316	
출 연 금	5,000,000	5,000,000	0	道 10억, 공주 20억, 부여 20억
보 조 금	200,000	0	200,000	마사회 기금사업
임 시 수 입	59,555	20,000	39,555	국세환급금 및 보조금반환
내 부 거 래	540,761	300,000	240,761	순세계잉여금 및 세계화기금 전입금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1회추경	본예산	증 감	비 고
총 예 산	5,800,316	5,320,000	480,316	
시 군	4,505,900	4,000,000	505,900	말 프로그램(4억), 안전보험(12백만원) 시·군 자체 수익사업 보전(94백만원)
추진위	1,294,416	1,320,000	△25,584	
제62회 백제 문화제	소 계	788,500	775,500	13,000
	프로그램	320,000	300,000	20,000
	홍 보	359,400	359,400	0
	행사경비	109,100	116,100	△7,000
추진위 운영 경비	소 계	505,916	544,500	△38,584
	인 건 비	208,247	228,581	△20,334
	경상지출	264,480	266,730	△2,250
	자본지출	11,000	27,000	△16,000
	예 비 비	22,189	22,189	0

4 백제문화제 전문가 간담회 제시 의견 검토

① 학계 검토 의견

- 백제문화제는 그동안 성과도 많았고,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통해 성장해 왔음.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축제평가는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로 평가하고 있음. 이런 관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점검 필요

- 전체 재원규모에 비해서 축제프로그램의 수준과 행사규모 및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 행사가 외주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른 축제보다는 재원활용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

■ 축제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

- 백제문화제는 현재 외주방식의 축제제작은 오랜 역사의 축제임에도 축제제작, 운영, 집행, 홍보마케팅, 인력활용 등의 전반적 노하우가 축제 내에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임. 축제집행부 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외주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

■ 축제조직의 재정비 요구

- 축제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인력은 축제위원회의 과건공무원이 중심이 되고 있음. 축제는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기획력과 섭외력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 사업과 업체를 잘 알아야 운영과 재원도 효율적으로 집행도 할 수 있음.
-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를 모집하여 ‘축제총감독’과 ‘백제문화제 전문축제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지금 있는 위원회와는 다른 전문가조직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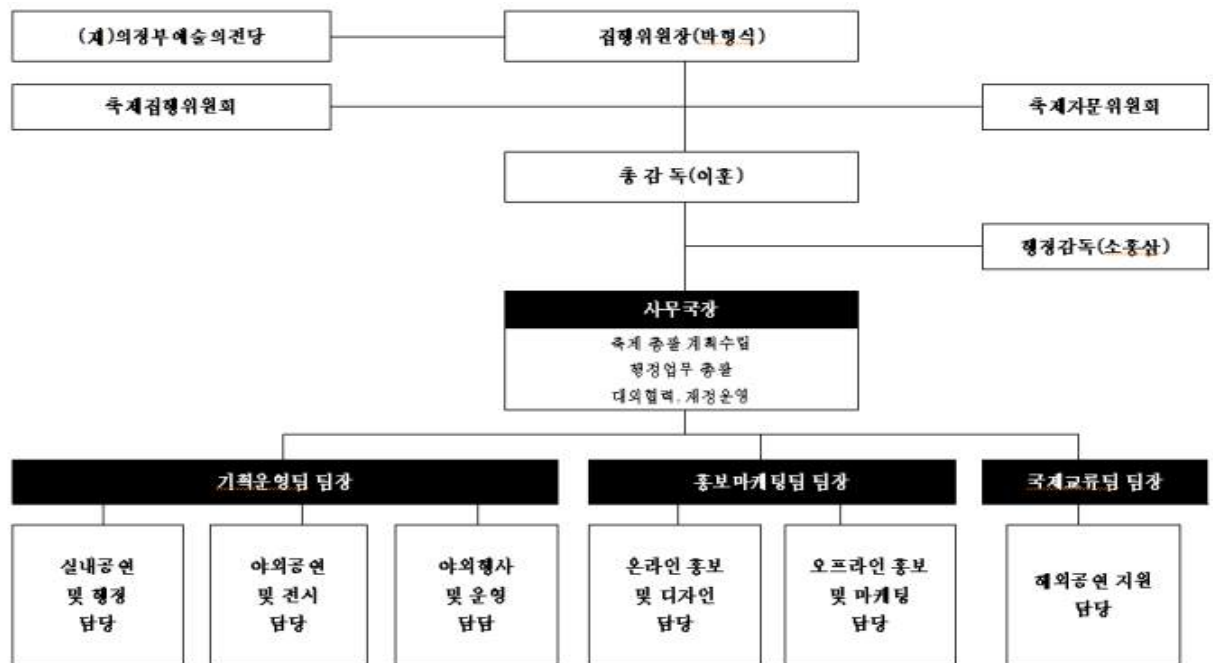
※ 조직구성의 사례(참조)

- 아래 축제사무국 조직사례는 ‘공연예술축제’의 사례이기 때문에 백제문화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예산규모가 9억 수준의 축제이기 때문에 백제문화

제보다 작은 규모임을 고려해야 함.

- 하지만, 전문적인 축제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전체축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체기획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할 가치가 있음.
- 아래 조직에서는 ‘시’에서 재원을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 전당에 지원하고, 전당에서는 ‘축제사무국’을 구성하여 축제를 집행함. 또한 ‘축제집행위원회’와 ‘축제자문위원회’를 통해 축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축제에는 총감독, 사무국장, 각 분야별 팀장과 팀원을 통해 실질적인 축제기획, 운영, 홍보마케팅, 국내외공연단 섭외, 야외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개막식과 폐막식을 직접기획 운영함.
- 단, 축제주제체험관의 경우 전시업체와 외주계약을 통해 진행하지만, 전반적인 기획방향, 콘텐츠는 사무국에서 제시하고, 충실히 진행하도록 지도함.
- 행정감독은 ‘사무국’과 ‘예술의 전당’ 사이에서 예산과 운영상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며, 행정적 도움을 제공함.

※ 축제 조직도 사례



이름	현 보직	조직변경
○ ○ ○	총괄운영팀장	사무국장
○ ○ ○	국제교류팀장	좌동
○ ○ ○	총괄운영팀원	기획운영팀, 야외공연 및 전시담당
○ ○ ○	기획홍보팀원	홍보마케팅팀, 온라인홍보 및 디자인담당

※ 조직의 역할분담

사무국장			축제 총괄 계획 수립, 행정업무 총괄 예·결산 집행 및 관리, 외부지원금 행정 진행 협찬/후원금 유치, 대외협력 업무
기획 운영팀	팀원	공연 담당	국내공연 계약 및 공연자 관리 실내공연 진행(전당 대·소극장, 청소년수련관, 시의회, 신세계 문화홀 등) 및 객석관리
		행사업무 담당	집행위·자문위원회 준비 및 진행, 심포지엄 준비 및 진행 리셉션, 네트워킹 파티 준비 및 진행
		행정업무 담당	관공서, 외부기관 등 관련 대외업무 담당 예산 및 지출관련 업무 지원
	팀원	야외공연 담당	개·폐막식 진행, 야외 프린지 공연 공모 및 계약, 행사진행 장비업체 공모 및 계약, 관리
		전시 담당	음악극 주제 체험관 기획 및 운영
		경연 담당	음악극 어워드 공모 및 진행, 텃미닛 음악극 공모 및 진행
	팀원	야외행사 담당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사이트 운영 음식 및 기념품 기획 및 사이트 운영
		인력 운영	이끄미짱, 이끄미 모집 및 운영, 팀 지원 협의 및 배분 및 지원, 인증서 제작 및 수여, 자원봉사 발대식 및 해단식 기 획 및 진행
		물품 운영	팀별 필요물품 취합 및 구입, 보급, 물자 수거 및 반납
홍보 마케팅팀	팀원	온라인 홍보	축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콘텐츠 제작 및 SNS(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유통
		언론 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기자간담회 추진 및 진행
		제작	포스터, 웹진단, 인쇄물, 영상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팀원	마케팅 및 티켓운영	단체 마케팅 기획 및 추진 티켓관리(단체티켓, 이색티켓, 초청티켓 등), 티켓부스 운영
		오프라인 홍보	옥외홍보(현수막, 포스터, 차량, 공간조성 등) 기타홍보(세금고지서, KTX, ATM, 택배물 등) 잡지 등 지면광고, 온라인 광고(라디오 등)
		가두 홍보	길거리 홍보, 홍보부스 운영 등
		기록	영상 및 사진 기록, 기록 자원봉사자 운영
국제 교류팀	팀장	해외업무	해외 초청작 섭외 및 투어조건 협의, 계약진행 및 예산 집 행, 국내유통 협의, 해외 공연 자료 조사 및 번역 진행
		행정업무	세금 및 저작권 관련 업무 관련 기관 지원금 유치, 숙박 및 차량 예약
		행사운영	예술교류 프로그램, 워크숍 등 해외공연자 관련 행사 기획 및 운영
	팀원	공연 업무	해외 공연 무대/장비 등 기술협의 및 현장 진행
		행정업무	영등위 허가 신청 등 공공기관 공문 발송 업무 해외 작품 자료 번역 위탁 및 진행
		행사 운영	국제교류팀 주최 행사 업무 진행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 추가적 의견 제안

- 도의 지원은 행사비 직접지원 보다,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하여 비용
도 축소하고 축제 운영방식도 개선해야 할 것임.
- 이는 상설인력 6명 준, 단기인력 12명 수준 추가 일 때, 매년 3-5억원 수준이

면 사무국 운영이 가능하고, 축제를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사료됨.

② 연구기관 의견 검토

- 백제문화제는 역사의 정통성과 일탈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집중화로 명품축제로 도약할 필요가 있음

■ 진단

◎ 백제문화제에 걸맞은 컨셉 및 대표프로그램 부재

-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무수한 역사 관련 축제가 기획되어왔지만 정작 역사 축제의 느낌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짜깁기 형태의 프로그램구성을 보여주는 축제도 적지 않았음.
- 백제문화제에 백제문화는 없었다고 평가하는 사례가 있음. 모든 체험프로그램 및 부스에 ‘백제’라는 명칭을 붙여 백제 고유의 문화에 대한 고증과 역사적 산물에 대한 재창조 없이 무분별한 도입은 백제문화제의 개최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음.
- 다수의 축제프로그램보다는 백제문화제의 취지와 컨셉을 살릴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 축제의 주제와 연관된 단 한가지의 핵심콘텐츠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 세계적인 축제는 홍보가 없어도 사람들이 매력적인 축제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옴. 그 곳에 가면 방문객들은 높은 주제성을 가지고 다른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축제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없이 기대감을 가지고 방문하게 됨.
- 스페인 류놀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La Tomatina)’, 이탈리아 이브레아의 오렌지 전투축제(Ivrea Orange Battle Carnival) 등이 토마토던지기, 오렌지 던지기 등 지극히 단순하지만 단 한가지 핵심프로그램으로 세계 각지의 관광객을 저절로 찾게 만들고 있음. 백화점식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에서 기인하는 획일화된 지역축제 운영사례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축제에서 본받을 만한 요소라고 봄.
- 즉, 축제의 주제와 연관된 핵심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하는 편이 축제의 짜임새를 견고히 함은

물론 방문객의 축제 참여 집중도를 높이고 방문객을 만족시키는 데도 효과적일 것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의 혁신을 통해서만이 지속가능한 백제문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임

◎ 축제의 본질인 신명과 일탈성 미흡

- 현대적 의미의 축제는 제례의식보다는 유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음. 축제 명칭에 있어서도 1955년 ‘백제대제’로 시작, 1965년 ‘백제문화제’로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제(祭)’만 있고, ‘축(祝)’의 의미가 약함. 이는 패망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임. 이러한 분위기가 경축의 의미가 아닌 추모의 분위기로 흘러 일탈과 난장의 현대적인 축제가 아닌 추모제의 성격 강하게 풍김. 축제는 지역민뿐 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방문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슬픔을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보임. 진도의 만가처럼 슬픔보다는 망자를 즐겁게 보내드리는 해학의 장을 마련해보는 방안을 숙고해보았으면 함.
- 축제의 본질인 신명과 일탈을 추구하는 ‘축제(祝祭)’의 의미와 과거의 제사에서 현재의 축제로 옮겨가야 하는 의미에서 명칭변경을 ‘백제문화제’에서 ‘백제문화축제’, 또는 ‘백제문화축전(祝典:축하하는 뜻으로 행하는 의식이나 행사.)’ 등으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하비 콕스(Harvey Cox)는 「바보들의 축제(The feast of fools)」에서 현 산업사회가 영위하는 인간의 삶은 메마르고 왜소화된 현상을 지적하며 “인간을 노동자, 도구, 공작인, 이성적 사유인으로서 만 아니라 놀이와 춤을 즐길 줄 아는 축제인(homo festivus)으로서 꿈을 그릴 수 있는 환상인(Homo fantasia)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 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이라고 보았음.
- 따라서, 축제의 본질인 신명과 일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몸으로 체험하면서 열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음. 불과 1시간 30분동안 토마토 던지기만 하는 스페인 토마토축제(la Tomatina), 물총 쏘기와 물벼락을 맞는 태국의 송크란축제 등 지극히 단순한 놀이를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것이 세계인이 찾는 축제임.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
- 축제의 본질은 지역주민들의 신명풀이이자 일탈의 즐거움임. 이 축제의 본질을 잊어선 안 됨. 외지의 관광객들보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놀이판이 훨씬 더 중요함. 이런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만이 축제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외

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만들 것임.

■ 개선방향

◎ 컨셉변경

① 국제축제로 전환 : 국내 중심에서 외국으로 확장

- 백제문화는 중국문화를 유입하여 재창조하고 일본문화의 원류가 되도록 전파해서 일본인들도 인정하는 한중일 문화의 중심에 자리했었음. 이를 계승 발전시켜서 한류의 열풍과 함께 전세계에 새로운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데 앞장서야 함.
- 백제문화제의 경우 백제교류국인 중국, 일본 등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외연 확대가 요구됨. 기존의 국내중심의 행사에서 일부 국가들의 참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명칭, 개최장소, 개최시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라문화제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문화대축전 등 명칭, 소재 및 개최지를 확장한 사례는 시사점이 큼. 고대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해상왕국·교류왕국 백제를 되살리는 일이 과제이므로 동아시아 해양문화교류전, 한중일 삼국문화교류전 등 콘텐츠를 과감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음

"처음 부여는 녹산(송화강 유역)에서 거처했는데,
백제의 침략을 받아 쇠산해져서 서쪽 연나라 근처로
 옮겨졌으나 방비를 하지 않았다"-자치통감 영화 2년 정월 조
"백제국은 본디 고려(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1천여리에 있었다"
(송서 백제 조)

상기 중국 두 사서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백제라는 표현은
송화강까지 확대된 '만주 백제'의 존재를 추정케 함

554년 백제가 일본에 보낸 물품 가운데 하나인 페르시아 식물인 탐등
(Taptain)은 북인도 지방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자는 이때 백제의 교역료가 제주
-북큐슈-오키나와-대만-인도차이나반도-인도에 이르렀다고 본다.

-출처: 새로 쓰는 백제사(이도학)-

㉠ (육상) 한중일 역사문화행렬 경연대회 개최

- 1965년부터 시작되었고 백제문화제의 대표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백제역사 문화행렬'을 3국간의 경연대회로 기획하여 개최함.

- 백제와 연관있는 정가왕 부자의 영혼을 만나게 해주는 '사와스마쓰리', 일본의 3대마츠리로 불리우는 교토 '기온마츠리'의 가마행렬, 한국의 백제역사문화행렬, 중국의 동탄시 문화행렬, 유등행렬 등 국가별 특색있는 행렬을 통해 삼국간의 문화교류 및 우호에 앞장서는 축제로 전환.
- 동아시아 최강의 교류왕국이었던 대백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퍼레이드 실시, 기존의 중국 양나라 행렬단(불교문화 전수), 일본 행렬단(오사카 시텐노지 일원에서 개최하는 '와소축제'축하행렬단 등 소수그룹 참여가 아닌 다수의 문화교류단 참여 방안 강구

㉔ (해상) 해상왕국 백제 시대상 반영

- 해상왕국으로서의 백제의 위상을 구현하기 위한 개최장소 확대
- 일본과 중국 외에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교류기록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해상문물 교류전 개최
- 서천군 마량포구 또는 백제의 무역항으로 추정되는 서산시 항구 앞에서의 문물교류 퍼포먼스

㉕ (육상) 일본에 전래된 문화들의 총집합

- 일본에 백제문화를 전수한 박사, 화공, 와공, 경사, 율사, 의사, 석공, 도공 등의 후손들을 초청하거나, 일본에 전래된 백제음악으로 알려져 있는 메이와아악(明和雅樂)공연,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수된 백제기악공연 등 일본 아스카문화의 태동이 된 사례들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으로 개발

㉖ (강) 금강 및 백마강에서 펼쳐지는 삼국의 연등 향연 및 대형연등 설치

- 중국, 일본, 한국의 연등을 금강변이나 백마강에서 불교문화중 하나인 연등을 활용한 야간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작가를 활용한 '한(恨)의 다리' 설치
 - 금강, 백마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선박의 주요 운송로 뿐만 아니라 요새 방어용 해자 역할과 수로를 만들어 다용도 활용

한국의 전통 한지(韓紙)로 만든 대형 연등이 설치된다. 건물 5층 높이(약 15m)의 작은 섬 같은 이 연등 외부는 세계 어린이 수천 명의 꿈이 담긴 작은 그림들로 꾸며진다. 연등 위엔 한 어린이 모형이 설치되고 그 손엔 밝은 빛을 발사하는 전등이 들려 있다. 그 전등이 움직이며 런던 밤하늘에 쓰는 글자는 한글로 ‘꿈’.



<영국 런던 템스 강에 설치될 ‘꿈의 섬’ 조감도>

“‘꿈의 섬’이 ‘꿈의 다리’로 연결되고 세계 아이들의 꿈이 한반도의 꿈어린 민족을 이어 주는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진강 꿈의 다리는 그의 오랜 꿈. ‘세계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가로세로 3인치(약 7.6cm) 정사각형 패널 100만 장으로 내부를 꾸미고,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랫말로 외벽을 장식한 지름 250m의 세계 최대 원형 다리’를 임진강에 설치하고 싶다는 것이다.

“꿈의 다리가 임진강에 놓이면 그 강은 더 이상 분단선이 아니라 남북을 이어 주는 연결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다리를 걸으며 통일을 염원할수록 그 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처: 동아일보(2016.03.09.)

㊤ (육상) 당나라로 끌려간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 스토리텔링

- 백제 패망 후 아버지 의자왕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간 부여용은 백제부흥운동에 나선 백제 유민을 회유, 설득하고 당나라군에 투항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여용의 인간적인 고뇌의 스토리를 극화하여 공연프로그램 개발

② 백제시대의 상 반영 : 주제성 집중

- 백제문화제임에도 불구하고 백제문화가 아닌 조선문화의 프로그램이 발견하는 사례가 있음. 고증이 어렵다면, 상상력을 발휘하여 백제시대에 맞는 창작물이거나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백제다움의 축제의 장을 펼쳐나가야 함
 - 백제시대 인물상 구현 프로그램 연차별 실시
 - 왕인박사, 근초고왕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친근한 접근 시대

㉠ 역사재현극 ‘백가의 난’ ‘칠지도’ 재공연

- 지난 백제문화제에서 반응이 좋은 공연에 대해 재공연 추진
- 2007년 큰 인기를 끌었던 무령왕릉앞에서 펼쳐진 ‘백가의 난’ 공연 추진
- 근초고왕의 일대기를 극화한 뮤지컬 ‘칠지도’ 공연 추진

㉡ 한국의 백제관련 축제의 집대성

- 한성백제문화제, 서동연꽃축제, 익산서동축제, 왕인문화제 등 국내에서 펼쳐지는 백제축제들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부스 또는 홍보장을 마련
- 지자체와 협력하여 백제시대 전기의 송파구, 백제의 최초 도읍지(미추홀)로 비정되는 인천지역, 익산지역 등 분산 개최도 고려할 사항으로 보임

③ **‘난장’ : 축제성 적극 도입**

- 백제문화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축제성을 부각과 제례중심에서 제사에
서 난장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노력 필요.
- 일탈 등 난장의 요소를 가미하여 능동적·적극적 참여와 흥미 유발

스페인 남서부 피오르날 마을, 1600명 인구, 매년 1월19일,20일, ‘순무던져 소도둑
쫓는 전통서 유래, 가면쓴 괴물 이름이 하람플라스, 순무만 1만개 사용(1만 8000kg,
주민 1명이 10kg이상 무를 던진 셈), ‘악마’상징하는 ‘하람플라스’향해 순무 공격



스페인 하람플라스축제 사진

④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축제 : 축제의 트렌드 및 수요 반영

- 다양한 전통문화 시연 및 체험으로 에듀(edu)축제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제기. 경주엑스포의 축제인프라 구축과 행사장 인근 관광지의 매력을 백제문화제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함. 백제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형 축제 및 장소마케팅을 강화해야 함.
- 이 같은 분석에 따라 백제문화제는 역사 교육적 요소와 재미를 가미한 ‘에듀테인먼트 축제’를 지향. 역사적 사실과 상상력이 가미되고 관람객의 기대치에 맞는 체험·참여형 콘텐츠 확대가 요구됨. 백제문화의 잠재된 스토리텔링 발굴과 현대적인 재해석이 필요함.
- 백제인의 의식주, 놀이문화, 실생활에 관한 스토리텔링 개발과 현대적 가치로의 재창조가 요구된다. 디지털 시대에 백제문화의 입체화 전략도 필수.
- 첨단 기술·영상을 활용하거나 백제 문양의 디자인, 백제 스토리 등의 게임산업 연계 등 킬러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금동대향로를 찾아라

- 공주 및 부여 축제장 곳곳에 금동대향로의 캐릭터(분신)를 숨겨놓고 캐릭터를 찾게 하고, 숨겨진 캐릭터의 미션을 수행하여 모든 캐릭터를 수거하는 참가자에게 경품을 제공

㉡ 금동대향로의 악사, 인물, 동물 부스 마련

- 피리, 북 등을 연주하는 5인의 악사와 각종 무인상, 기마수렵상 등 16인의 인물상과 봉황, 용을 비롯한 상상의 날짐승, 호랑이, 사슴 등 39마리의 현실 세계 동물들이 표현된 금동대향로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에듀테인먼트축제를 구현

㉢ 백제금동대향로를 찾아라(대표프로그램 개발)

- 백제금동대향로는 피리, 북 등을 연주하는 5인의 악사와 각종 무인상, 기마수렵상 등 16인의 인물상과 봉황, 용을 비롯한 상상의 날짐승, 호랑이, 사슴 등 39마리의 현실 세계 동물들이 표현된 하나의 소우주이자 문화·예술, 종교, 외교 등 백제시대 문화의 집합체임.
- 백제금동대향로의 서사적인 구조와 함께 백제사를 융합해 노래, 시, 소설, 뮤지컬, 연극, 영화 등으로 제작되기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또한 중요함. 백제금동대향로의 각종 인물·동물·자연 등은 미술학적으로, 불교·도교 등의 종교적으로, 공예기술과 제작기법은 과학적으로 대표돼 그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추출해 볼 수 있음



- 금동대향로에 나타난 주제를 형상화해 축제장의 테마공간으로 만들거나, 전체 구성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연극, 뮤지컬,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함
- 콘텐츠 개발에 있어 역사적 사실 이외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함. 현대적 의미의 축제는 제례의식보다는 유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음. 이는 정형화된 의식에서 탈피하여 난장적 요소의 가미를 통해 창조성을 강조해야 할 것임.
- 필자는 영국 가이포크스데이 축제를 답사하였는데(1605년 카톨릭 교도들이 왕가를 시해하기 위해 의사당을 폭파하려 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가이 포크스 데이’ 축제, 1606년 시작), 과거의 가이포크스 일당의 만행을 규탄하고 잊지말자는 기념제의 성격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악단, 악동, 액터 등이 시가행렬 속에서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친근하게 접근시키면서도 축제성을 담보하는 노력이 본받을 만했음.
- 불타고 있는 나무 드럼통을 짊어진 사람들이 인파 사이로 지나다니고, 과거의 악단, 현대적인 악단, 과거의 복장, 현대적인 복장이 어울려져 캄캄한 시골에서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은 시각적이면서도 횃불냄새의 후각, 음악소리의 청각 등 감각을 자극하는 노력이 볼 만함. 또한 유모차를 끌고나와 행렬에 동참하거나 노인들도 과거행사를 추억하며 어깨동무하며 다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우리가 되돌아봐야할 과제임

⑤ 콘텐츠와 운영 혁신 :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 백제문화제 혁신을 위해 콘텐츠와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콘텐츠에서는 축제
다움이 전제되어야 함. 놀이성, 대동성, 일탈성, 장소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특산품 축

제에서 특산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 동화·만화 등 판타지 세계를 주제로 구현하는 것, 아이들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등 축제의 요소가 가미돼야 함.

- 무엇보다도 주제가 명확해야 하고, 남과 다른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개돼야 하며 소재와 주제성에 맞는 축제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임
- 축제의 본질은 지역주민들의 신명풀이이자 일탈의 즐거움이며 축제의 기능은 지역주민들의 결속과 유대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임. 지역공동체의 믿음과 화합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축제도 성공할 수 없음.

㉠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공모제 도입

- 백제문화제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대표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국제적 축제로 도약 및 매력 있는 국내외 관광객 참여프로그램 도입으로 내방객 유입 증대 등 관광 상품으로 특화시켜 나가고자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공모제를 도입
 - 프로그램 공모를 위해 조직위에서 공모계획 수립 및 진행,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지역외부의 심사위원 선정
 - 먹거리, 교육·재미효과, 프로그램 만족도 등 평가

㉡ 광역시자체의 역할 축소

- 일본의 우수축제인 교토 기온마쓰리, 오사카 텐진마쓰리 및 고치현 요사코이 축제의 공통점은 민간주도의 축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官)은 전체적인 기획 및 홍보, 민간단체 상호 조율 역할만 함
 - 고치현 요사코이 축제의 경우 팀당 참가비(한화50만원)를 주최측에 내고 팀원은 자비로 대회에 참가하며 우승팀의 시상은 트로피만 존재함(우승 명예 부여)
 - 일본 거리축제의 원조인 고치현 요사코이 축제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영예이므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함
 - ※ 교토 기온마쓰리 및 오사카 텐진마쓰리: 약 1,200년간 지속된 일본 민속문화축제로써 매년 7월경 개최되며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퍼레이드형 축제
 - 축제의 목적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문화육구 충족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이므로 민간주도의 축제 추진이 바람직하며 축제의 상징성·대표성을 강화하여 참가자들에게 자긍심 부여
- 지자체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원칙'을 준수해야 함. 축제전문가에게 믿고 맡겼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믿고 따라야 지속가능하다고 봄.

- 축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예산지원과 행사진행에만 지원하고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이나 진행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신나서 즐기고 놀 수 있는 풍토 조성

- 엄연히 축제의 주체는 참여하는 지역주민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지금까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및 여건 성숙이 필요.
- 우선, 축제를 방문하는 손님을 만족시키기 전에 개최지역의 지역주민을 먼저 만족시켜야 함. 이러한 인터널 마케팅(Internal Marketing)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적극적 동참은 진정성을 통해서 다시 방문객에게 전달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모두 만족시키게 됨. 이는 지자체의 축제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의 축제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지역주민과 호흡하기 위한 제도화된 기구가 필요함. 지금의 축제위원회는 명망있는 인사중심에서는 서민들의 축제의 수요나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사료됨. 조직위 산하 또는 민간자율조직 형태의 가칭 민관 협력체인 '축제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제의 독자성을 유지하되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 기획이나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함
-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화합이 확보되면 지역축제의 모든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 축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의 제도적 보완, 지역주민을 축제전문가로 양성하고, 축제현장에 젊은 인력의 수급, 독특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기념품 및 관광자원연계 개발 등의 과제는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과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⑤ 변천과정과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 과제

① 백제문화제에 대한 행사규모와 새로운 행사방향의 전환

- 62회째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가 2010년 세계대백제전과 2015년 백제역사유적 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를 계기로 행사규모와 행사방향에 대하여 새로운 도약의 전환시기를 맞이함

② 백제역사의 주요 콘텐츠와 행사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부각

- 충남 관광객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보령·태안에 연육교 개통이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거점지역에 해양관광기반을 구축

③ 추진위원회 조직의 재정비와 관리운영 역량의 강화 추진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별도 조직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축제의 전문성과 운영의 노하우 축적을 위한 조직재정비와 조직역량의 강화가 필요

④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자립적 행사프로그램 운영 확대

- 전체 재원의 규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행사가 외주방식을 진행되고 있고, 다른 축제보다 재원활용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⑤ 지역주민 및 민간, 관광객 참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축제의 주체는 지역주민으로서 백제문화제는 전통적인 향토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주민주체의 축제준비와 참여, 관광객이 함께하는 신명나는 축제로 기획과 놀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요구

⑥ 지역단체와 인접 시·군의 협력과 참여 확대방안 모색 필요

- 백제문화제가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행사 관련 시·군간 협력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율 조직 축제협의체 구성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3.

백제문화제 활성화 방안

1 추진방향

① 접근개념

■ 글로벌 행사방향과 행사규모의 전환

- 백제문화제의 세계화를 향한 글로벌 행사방향과 충남의 백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향토문화의 로컬 축제의 행사규모로 전환

■ 백제 킬러콘텐츠와 매력성의 부각

- 백제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살린 컨셉과 대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에 참여자의 신명과 일탈성을 살릴 수 있는 매력있는 행사로 육성

■ 조직 재정비와 관리운영역량 강화

- 축제 조직의 재정비를 통한 전문성의 확대와 축제 기획인력의 양성을 통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관리운영 역량을 강화

■ 자원 효율사용과 자립적 행사 운영 확대

- 축제 행사프로그램의 외주 추진 방식에서 자원활용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축제의 기획과 제작, 운영에 대한 자립화를 통한 운영을 확대

■ 지역주민과 단체, 시·군 협력과 참여 개선

- 백제문화제 부대행사 프로그램의 제작과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과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축제 주관 해당 및 주변 시·군의 협력과 참여방안을 개선

접근 키워드	접근 개념
글로벌 행사방향과 행사규모 전환	세계화를 향한 글로벌 행사방향과 전통적 향토문화 로컬 축제화
백제 킬러콘텐츠와 매력성 부각	백제문화의 정체성을 살린 컨셉과 대표프로그램과 일탈성 제고
조직 재정비와 관리운영 역량강화	조직의 전문성 확대와 기획인력 양성을 통한 노하우 역량 강화
자원 효율사용과 자립 행사 운영	행사 자원활용의 전문성 확대와 축제의 제작과 운영의 자립화
주민과 단체, 시·군 협력과 참여	행사의 제작과 운영에 주민과 단체 참여 확대와 시·군 협력 개선

② 추진방향

■ 기존 백제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새롭게 탈바꿈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와 더불어 세계적 축제로 문화역량의 선양하고, 충남의 전통문화가 담긴 지역 향토문화축제로 지역 문화역량을 결집

■ 백제문화제의 킬러콘텐츠와 일탈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웅진과 사비의 백제문화 고유성이 있는 대표프로그램을 킬러콘텐츠로 발굴·운영하고, 축제방문객들이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일탈행사를 전략적으로 추진

■ 조직의 전문적 노하우 축적과 관리운영 역량 강화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사 관리운영의 인적 노하우 축적을 위하여 조직 재정비와 역량을 강화

■ 행사의 외주수행방식 효율화 및 기획과 제작, 운영의 자립화

- 재원의 축소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주수행 방식을 개선하고, 행사의 기획과 제작, 운영의 자립화 대책을 마련

■ 주민과 단체의 부대행사 제작·운영참여와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 백제문화제의 대표 및 부대행사에 지역주민과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관광객과 함께하고, 축제 주관 및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을 확대

목 표	추진방향
백제문화제의 활성화	기존 백제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새롭게 탈바꿈
	백제문화제의 킬러콘텐츠와 일탈프로그램의 발굴 및 운영
	조직의 전문적 노하우 축적과 관리운영 역량 강화
	행사의 외주수행방식 효율화 및 기획과 제작, 운영의 자립화
	주민과 단체의 부대행사 제작·운영 참여와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② 백제문화제 킬러콘텐츠 발굴과 글로벌화 방안

① 글로벌 행사와 백제문화제 킬러콘텐츠 개발 방향

■ 전문가 제안사업 예시

- 백제문화제 컨셉 및 킬러콘텐츠의 전문가 제안사업과 추가적 사업발굴 추진

☐ 국제행사 컨셉 제안 프로그램 예시

- (육상) 한중일 역사문화행렬 경연대회 개최 - 일본 왓소축제
- (해상) 해상왕국 백제 시대상 반영 - 백제무역항 퍼포먼스 등
- (육상) 일본에 전래된 문화들 총집합 - 왕인박사와 백제음악 등
- (강) : 금강 및 백마강 삼국의 연등 향연 및 대형연등 - '한'의 다리
- (육상) : 당나라로 간 의자왕 아들 '부여웅'스토리텔링
- (육상) : 황산벌 전투재현 - 5천결사대 전투 공연과 참여

☐ 백제시대 주제 제안 프로그램 예시

- 역사 재현극 '백가의 난', '철지도' 공연
- 한국의 백제문화 관련 축제 교류 - 한성백제화제, 부여/익산서동연꽃축제, 왕인문화제

☐ '난장' 프로그램의 도입

- 미마지 가면무도회 개최 - 삼국 연등제 병행

☐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프로그램 강화

- 금동대향로를 찾아라 -캐릭터 퍼포먼스와 공연 등
- 금동대향로의 악사, 인물, 동물 부스 마련
- 백제금동대향로 비밀찾기 - 대표프로그램 백제문화와 현대 콘텐츠산업화

■ 한·중·일 백제사신퍼레이드 개최

- 한중일 국제행사의 컨셉으로 금강과 백마강, 공주와 부여 주요 행사거리에서 한중일 백제사신퍼레이드 또는 역사문화행렬 경연대회 개최

■ 금강·백마강 삼국연등제 개최

- 금강 및 백마강에 백제 및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연등과 한중일 삼국의 연등 향연을 개최하는 야간행사장 조성 및 연등퍼레이드와 미마지 가면무도회 등을

통한 야간 난장 프로그램을 추진

■ 미마지 가면무도회 개최 : '난장'

- 전통문화 재현축제에서 주민과 관광객이 일탈과 난장의 요소를 가미하여 백제의 미마지와 현대적 놀이와 재미 요소를 결합한 미마지 가면무도회와 공연장, 각종 장터, 놀이마당 등을 구성하여 운영

■ 콘텐츠와 운영 혁신 사업 제안

- 백제문화제 대표프로그램 공모제 도입
- 광역지자체 역할 축소 : '팔 길이 원칙' 축제로 전환
- 민관 축제협의체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역할 수행

② 글로벌 세계유산백제문화제 개최

■ 글로벌 세계유산대백제전 백제문화제 개최

◎ 행사개요

- 백제문화는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2010세계대백제전을 개최
- 2010세계대백제전을 개최 이후 2015년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이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메가이벤트가 개최
- 세계유산 대백제전의 개최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세계유산 대백제전(UNESCO Great Baekje World Festival) 개최개요

- 행사명 : 세계유산 대백제전(UNESCO Great Baekje World Festival)
- 기간 : 2020년 이 후 매 10년마다 정기 개최
- 장소 : 공주시·부여군 및 충남 일원
- 주최 : 대백제전추진위원회
- 주관 : 충청남도(충남문화재단)/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위원회
- 주제 : 세계유산 대백제의 세계와 만남
- 행사내용 : 공연·전시·이벤트, 국제학술회의, 체험프로그램 등
- 유치목표
 - 관람객 : 250만명(내국인 230, 외국인 20) 유치
 - 해외유치 :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도시 등 20개 도시 이상
- 예산액 : 250억원(국비 30, 지방비 170, 기타 50)

◎ 추진방향

- 유네스코 세계 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은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위한 것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됨에 따라 이를 세계화 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국제행사를 개최
- 유네스코 세계대백제전 개최로 백제문화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를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속성을 유지
- 백제문화제를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메가이벤트로 개최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산업으로 연계 육성하며, 세계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콘텐츠 산업과 지역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세계역사문화축전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 행사프로그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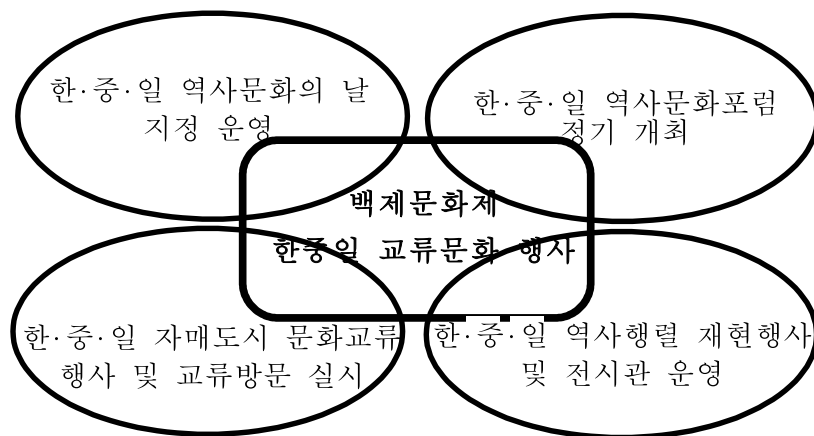
- 행사의 대표프로그램과 부대행사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 및 개최

-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도시 교류전 및 공연
 - 세계유산 등재도시 교류관
 - 세계유산 등재도시 초청 전통공연
- 세계고대국가 교류전
 - 세계 4대문명관, 한중일고대교류관, 동남아교류관
- 세계 한민족 통일마당 및 한국 고대삼국관
 - 세계 한민족 만남 어울림 통일마당
 - 고구려관, 신라관, 백제관
- 세계유산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행사 개최
 - 세계유산 국제학술회의 및 포럼, 세계역사도시 회의 유치
 - 백제교류국 교류행사, 일본왓소축제 등 국제행사
- 고대 동양문화 교류포럼 및 사신퍼레이드
 - 동아시아 백제문화교류 포럼 개최
 - 백제교류국가 사신퍼레이드 개최
- 금강 수상 야간공연 및 선박행렬
 - 백제테마 금강 야간수상공연
 - 금강 사진선박 행렬 행사
- 금동대향로 퍼레이드 및 전통공연
 - 금동대향로 지상퍼레이드
 - 금동대향로 및 미마지 공연

◎ 한·중·일 백제문화교류 축제화

- ‘한·중·일 역사문화 학술 포럼’ 정기 개최로 역사행사 고증
 - 백제문화의 국제간 교류와 역사문화 행사의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기 위하여 백제문화제 기간 중 정기적으로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새로운 역사문화행사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행사내용을 고증하여 보완
- 한·중·일 자매도시 문화교류 행사 및 교류 방문행사 실시
 - 공주·부여 등이 중국과 일본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문화교류 행사와 관광객 교류방문 행사를 실시
- 한·중·일 역사행렬 재현행사 및 전시관 설치 운영
 - 백제문화제에 중국과 일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의 자국에 역사행렬 재현행사와 전시관을 설치하여 운영

한·중·일 백제문화제 교류행사 개념도



◎ 사업추진방안

- 세계유산 대백제전은 공공주도형으로 백제문화추진위원회(공주/부여) 또는 백제역사유적지구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익산포함)가 주최가 되어 행사를 개최
- 백제문화제의 연계 개최 및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한 연계 사업과 병행한 국제적 행사로 추진하고 국제적 메가이벤트로서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도시와 세계역사도시 연맹국 등을 초청하여 교류전시회 및 전통공연 개최
- 또한, 국내외의 한민족이 참여하는 통일마당과 고구려, 신라, 백제 및 한성백제문화제가 참여하는 전시회 및 문화예술공연 실시

◎ 재원조달방안

- 세계유산 대백제전의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등 공공재원으로 추진
- 기타 수입으로 휘장사업, 입장료, 임대사업, 광고사업, 협찬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통한 재원조달 등 일부 자체수입과 민간참여 추진.

■ 해외 진출 백제문화제 개최

- 공주·부여에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를 해외로 진출하여 중국 및 일본, 동남아 뿐만 아니라 미주와 유럽 등으로 진출하여 개최
- 특히, 중국의 남경과 일본의 왓소축제 등 백제시대의 역사적 도시관계와 관련 축제를 개최하는 해외 현지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
-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해외 진출 사례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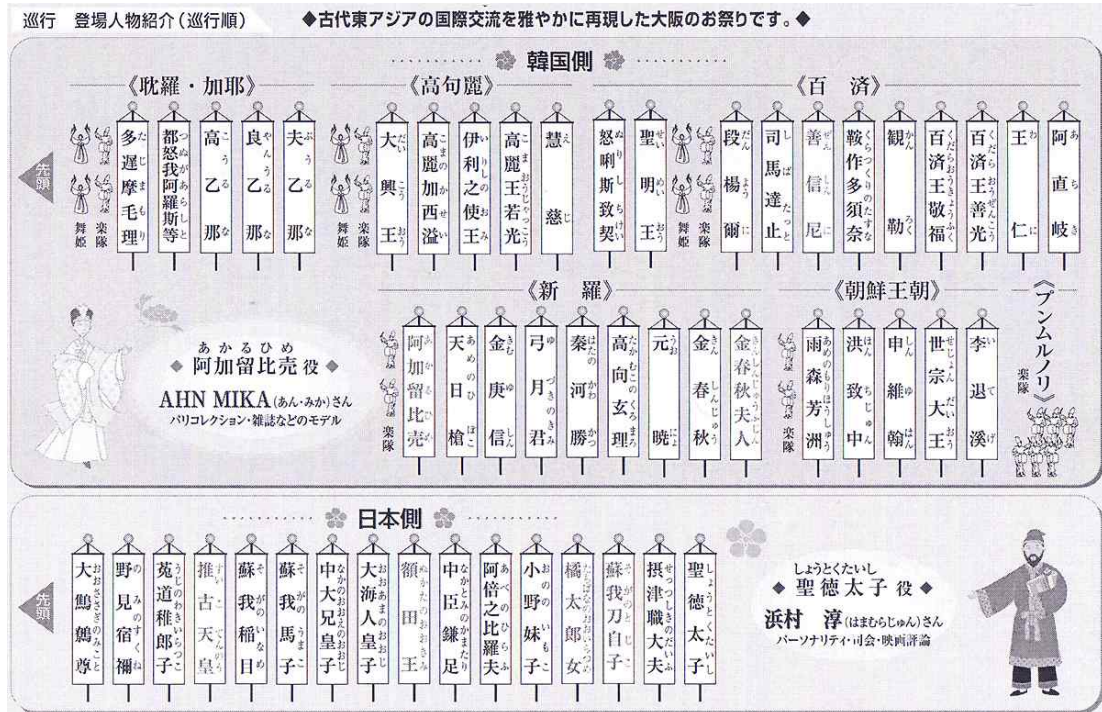
해외 진출 진주 유등축제 사례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세계로 수출되는 글로벌 축제

-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금상3개, 동상1개 수상
- 우리나라 축제 역사상 최초로 해외 수출
 - 2013년 2월 캐나다 수도 오타와 일원에서 개최된 『윈터루드 축제』에 초청되어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킴
 - 이로 인해 해외로 부터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음
 - 2013년 9월 미국LA한인축제 수출
 - 2013년 11월 캐나다 나이아가라 빛축제 수출
 - 2014년 멕시코, 미국 워싱턴D.C, 유럽 등지도 진출 예정
-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수출은 글로벌 축제로 나가는 첫걸음을 뗀 것이며 우리의 고유문화를 외국에 전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 수출, 도시 및 국가 브랜드 상승효과

일본 왓소 축제 사례



■ 백제금동대향로 카툰(캐릭터) 페스티벌 개최 : 로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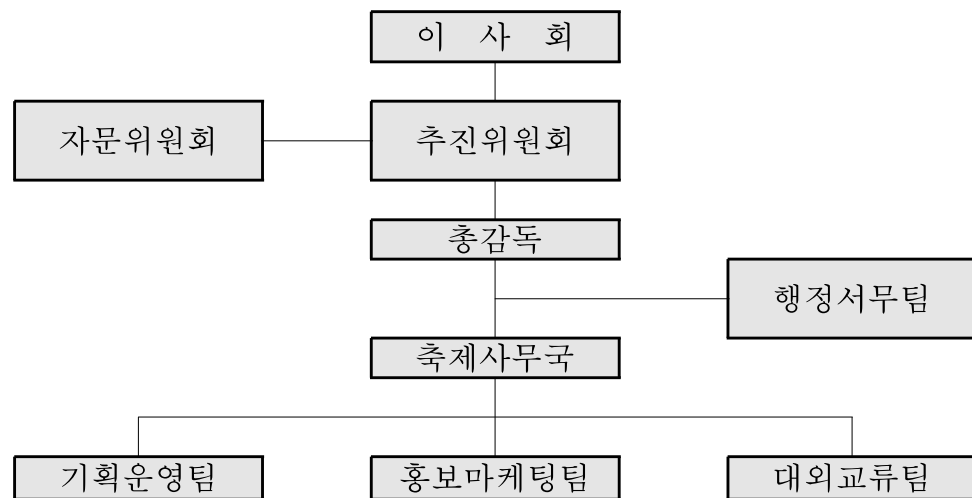
- 백제시대의 웅진과 사비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어 지역 특성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백제금동대향로의 원형 콘텐츠를 활용한 백제대향로를 주제로 하는 카툰페스티벌 개최
- 특히, 백제문화의 고유성을 가지면서 현대적 캐릭터 요소를 결합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트렌드와 함께 하면서 기존의 전통역사문화 중심의 축제형태에서 에듀축제와 아날로그, 디지털 등으로 백제 스토리를 문화콘텐츠 행사로 육성
- 이 페스티벌은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공주KTX역사를 행사장소로 하여 공주테마역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공주역을 백제테마역으로 하는 콘텐츠와 페스티벌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③ 조직의 강화 재정비와 관리운영 역량 강화 방안

① 추진위원회의 재정비

■ 축제전문사무국 설치와 조직 구성

- 현재 1처, 1과, 2팀의 사무팀, 기획홍보팀으로는 백제문화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이 재정비 되어야함
- 이를 위해 총감독을 두고 '축제사무국'을 설치하여 '축제자문위원회'와 '축제집행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축제전문사무국'에 기획운영팀과 홍보마케팅팀, 대외교류팀 등을 두며, 현재의 '사무팀'은 '행정사무팀'의 지원을 통하여 현재의 기능을 담당토록함
- 추진위원회의 재정비는 구체적인 검토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구성하여 추진함.
- 추진위원회 재정비(예시)



■ 전문인력의 확충

- 추진위원회 정원은 9명 중 현원은 6명이고, 이 중 4명이 공무원, 2명이 재단 계약직으로 실질적인 백제문화제의 전문인력은 2명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행정사무인력의 행정인력은 감축하고, 축제전문인력을 확대하여 백제문화제의 전문성 확대와 노하우를 축적토록 함
- 특히, 축제전문인력의 확대시에는 인건비가 필요하므로 충남도의 행사비 직접 지원보다는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하여 축제의 운영방식도 개선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6월	7~12월								
정 원	17	22	26	52	52	22	23	18	17	14	9	2 Δ7
현 원	17	22	26	48	48	15	12	13	14	9	6	2 Δ4
전문 인력	0	0	0	Δ4	Δ4	Δ7	Δ11	Δ5	Δ3	Δ5	Δ3	Δ3

※ 축제전문인력(Δ)이 더 필요한 경우 장기적으로 정원 확충

■ 충남문화재단/시군문화원과 협력 운영체계 구축

- 충청남도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도민의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문화재단 등 4개의 문화재단과 각 시군 문화원 등이 설립되어 운영
- 현재 아산문화재단과 부여문화원, 금산문화원 등은 지역의 문화유산축제를 주관하면서 지역축제를 개최함
- 백제문화제도 이제 충남문화재단과 시군문화재단 및 문화원들과 협력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축제로 개최되어야 함
- 특히, 백제문화제는 충남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충남도 대표프로그램은 공모제를 통해 충남문화재단에서 컨셉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협력조직을 역할을 수행토록 함

충남 지역문화예술기관 주도 축제사례

구 분		축 제 명	문화재단, 문화원 등 개최 방안
기존 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제(충남문화재단) ● 성웅이순신축제(아산문화재단) ● 서동연꽃축제(부여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 충남문화재단 지원 및 운영 ● 각 시·군 문화재단 지원 및 운영 ● 각 시군 문화원 지원 및 운영 ● 각 시군 예총지회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서산문화원) ● 짚풀문화제(아산문화재단) ● 금강여울축제(금산문화원) ● 성홍산해맞이축제(부여문화원)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양온천문화예술제(예총아산지회) ● 천안판페스티벌(천안예총) 	
신규 축제	문화유적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부상축제 	
	전통예술		

② 추진위원회의 역량강화

■ 인적 역량강화와 노하우 축적

- 현재의 행사프로그램 외주수행 방식은 축제기간이 오랫동안이면서도 인적역량과 노하우가 부족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따라 모든 행사프로그램의 외주수행방식을 개선하여 킬러콘텐츠와 대표프로그램은 주최측이 컨셉을 기획하여 공모제 또는 경연제로 실시함.
- 그리고, 부대행사도 이벤트 대행사의 외주수행방식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내 부대행사 수행 노하우도 축적해야함
- 특히, 추진위원회의 축제사무국 직원들은 장기적으로 축제전문가를 채용하면서 모든 행사의 기획과 제작, 운영 등에 직접 참여토록 해야함
-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경우 상근 7명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축제가 종료된 후 평가 후 다음년도의 축제를 1년간 미리 준비하여 개최함

민 · 관의 효율적인 운영

진 주 시

- 행정지원
- 수도권 및 타지역 매체 홍보
- 인력(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진주문화 예술재단

- 전반적인 축제 기획 · 구성 · 운영
- 등(燈)제작 및 배치
- 유료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수익창출

※ 축제전담 상설기구 운영 : 상근 7명, 계약직 (등제작) 8명

※ 제전위원회 구성 : 24명 내외 (진주지역 관련단체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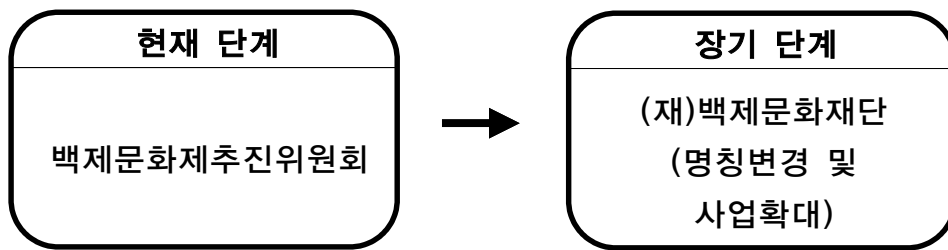


■ 장기적으로 백제문화재단(가칭)으로 명칭 및 사업영역 확대

- 현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발전시켜서 (재)백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
- (가칭)백제문화재단은 백제문화제 주관 이외에도 문화관광상품과 관광기념품의 개발·판매 등의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

- 백제문화권의 문화컨텐츠 개발사업으로 축제뿐만 아니라 예술, 공연, 애니메이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의 상품개발 사업 추진
- 단계별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 현재단계(2007~현재)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운영
 - 장기단계(2020 이후) : (재)백제문화재단 설립 운영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발전 개념도



4 행사자원 효율화 및 수익사업 육성 방안

① 행사 및 행사장 조성 등 외주방식과 부대행사 주관의 개선

■ 외주행사의 선택적 추진과 내부 기획·제작 강화

- 백제문화제의 행사프로그램 운영비는 2015년 3,042백만원에 47.2%이고, 행사장 조성, 행사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75.7%임
- 이러한 행사프로그램과 부대행사의 대부분은 내부인력의 부족과 노하우의 축적이 아직까지는 미흡하여 외주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임.
- 이에따라 외주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만 선택하여 추진토록 하고, 내부 기획과 제작을 강화하여 추진
 - ※ 최근 부여군은 부대행사로 시가지내에서 각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특색있는 주제가 있는 사비야행거리퍼레이드를 개최하여 주민참여형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부대행사 비용의 절감

- 대표프로그램과 부대행사의 주민과 단체참여와 직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외주행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최근 공주시는 부대행사에 대한 일정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단체, 지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백제문화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공모제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주요 행사장 및 무대, 부스에 대한 설치도 많은 비용(2015년 9억7천, 15%)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가로와 도시광장 등에 평상시 문화예술공연과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병행하여 조성하여 활용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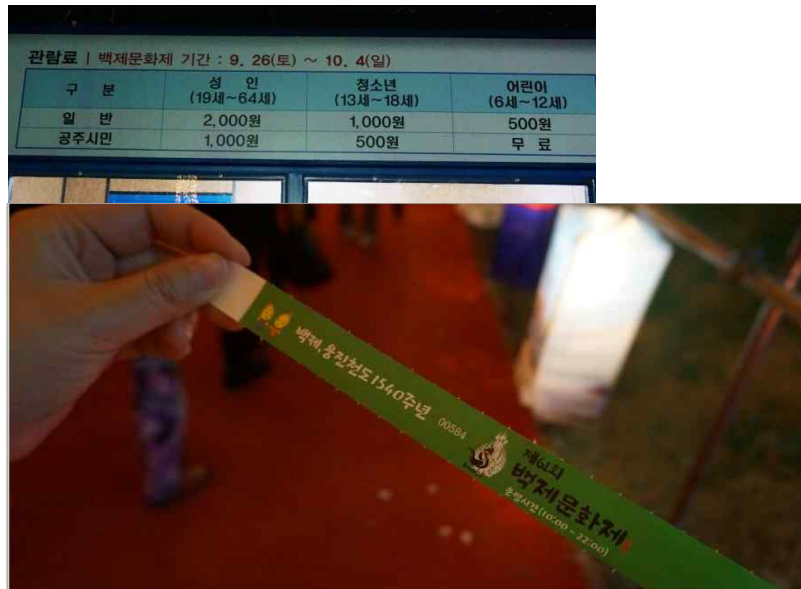
② 다각적 수익사업의 추진

■ 입장료 징수 프로그램 등 수익사업의 확대

- 과거의 축제는 대부분이 무료로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였으나 최근에는 축제참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수익형 축제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축제는 화천산천어 축제와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입장료 징수 등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함.
- 진주 남강유등축제 사례



- 따라서 백제문화제에서도 거리퍼레이드와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에서 입장료와 체험참가비 징수가 가능한 행사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최근 공주시는 거리퍼레이드 공연장소에 관람석을 마련하고, 유등다리 건너기 등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화 및 확대가 필요함



■ 민간단체와 사업체 스폰 부대행사의 확대

- 기존 백제문화제 예산현황과 제62회 백제문화제 행사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형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연고 대기업과 마사회 등 관련 기업체, 기타 후원금 등의 확대가 필요함
-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더불어 관련 단체와 사업체의 참여 등에 대한 스폰 부대행사 등도 발굴하여 확대 해야함.

⑤ 지역단체 및 인접 시·군협력과 참여확대 방안

① 지역단체 및 주민 참여사업 확대

■ 주민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참여시스템 구축

- 충남의 축제 중에는 축제육성위원회와 마을단체, 민속 및 전통예술단체 등이 대부분 주도하여 개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주민주도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이벤트는 점차적으로 주민주도형의 축제로 개최해야함.
- 이에 따라 충남에서도 백제문화제 역시 점차적으로 공공지원형에서 민간주도 자립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재 이와 관련된 축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히, 백제문화제는 대표프로그램은 공공에서 주도하고, 부대행사 등은 지역주민과 단체 등의 민간주도형 축제로 기능을 전환하여 자립화를 추진함
- 진주 남강유등축제 주민참여 사례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형 축제

- 소망등달기(32,000명), 유등띄우기(36,000명), 고교생 창작등 만들기(2,000명), 자원봉사자(5,000여명) 등 35만 시민의 15%가 직접참여

주민과 단체 참여형 전환 축제 예시

구 분		축 제 명	주민주도(단체)형 개최 방안
기존 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제(부대행사) ● 삼길포우럭독살체험축제 ● 예산삼배길쌈축제 ● 칠갑산장승문화축제 ● 남이홍장군문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과 각 시·군 행정적 지원 ● 별도 각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 ● 민간 및 상인회, 번영회, 마을회 등 주관 및 운영 ●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연계 공연 실시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산산신제 ● 정월대보름민속축제 ● 해동이 해맞이축제 ● 금강여울축제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 천안판페스티벌 	
신규 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문화 이벤트 행사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시풍속, 생산풍속 등 민속놀이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음악회, 서예전시회 등 	

■ 백제문화유산과 전통예술 소재의 소규모 부대행사 활성화

- 충남의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자원 중에는 개별 축제로서 개최되거나 부대 행사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들 3가지의 자원을 소재로 하여 기존축제를 업그레이드 하고, 신규축제를 발굴·육성하여 축제프로그램을 다각화해야함.
- 특히, 이들 주제중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가진 전통예술 소재의 자원들은 부대행사로 활성화 하고, 이를 지역주민과 단체가 주도가 되어 기획, 제작, 운영을 하도록 해야함.

백제문화유산과 전통유산 활용 부대행사 활용 예시

구 분		축 제 명	다각화 방안
기존 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문화제 ● 한산모시문화제 ● 홍성역사인물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과 전투,백제금동대향로 , 미마지 등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활용 ● 한산소곡주축제와 통합, 저산팔읍길쌈놀이 활성화 등 ● 역사인물과 관련된 현대적 콘텐츠의 공연 활성화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지시줄다리기 ●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 세계인류무형문화대전과 연계 킬러콘텐츠로 활용 ● 유교문화와 산성, 천주교 관련 프로그램 강화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견예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미술대전과 유교문화연계 행사로 업그레이드 ● 관광객 체험형프로그램 강화
신규 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문화관련 축제와 교육체험행사 발굴 및 육성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살,외암리민속마을 ● 보부상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품속 체험형 이벤트의 활성화 ● 민속 및 전통놀이 등의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참여 활성화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지도와 양직공도 (백제문화제 부대행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지도 관련 축제 발굴·육성 ● 양직공도 관련 패션쇼 등 현재적 콘텐츠 공연 발굴 및 개최

② 주관 및 인접 시군의 협력체제 구축

■ 백제문화 통합행사의 발굴 및 추진

- 백제문화제에서 웅진공주와 사비부여의 특성을 반영한 부대행사도 백제의 정

체성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백제문화를 포괄하는 통합행사를 발굴하여 개최해야함

-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2015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통합적인 대표행사로서 프로그램이 킬러콘텐츠로 육성되어야 함.
- 이러한 대표행사는 충남도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백제문화제의 성장을 이끌어 내고, 격년제를 변경하여 통합축제로 개최되어야 함.
- 그리고, 공주시와 부여군은 각 시·군의 특성에 적합한 행사의 기획과 제작, 운영을 자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백제문화제의 발전방향과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해야할 것임.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재단이사진 통합 재편

- 현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이사회 이사장은 공주시장과 부여군수로서 당연직 이사장임.
- 이러한 이사장의 구성은 공주와 부여의 협력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민간차원의 문화예술 관련 저명인사가 취임하여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제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 관련 인사도 이사진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확충하여 영입해야함.
- 재단이사진의 재편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백제문화제의 체제정비와 발전을 통해 안정화기 이루어진 이후 (가칭)백제문화재단으로의 변경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인접 시·군 참여 부대행사 공모제 실시

- 공주시와 부여군 이외에도 충남에는 백제문화권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들이 다수 있으며, 실제로 관련 유적과 전통문화가 전승되며, 일부 시·군에서는 관련 축제를 개최하기도 함.
-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타 지역인 전라북도 익산시와도 축제 및 관광코스 등에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있음
- 따라서, 이를 인접 시·군의 백제문화 관련 행사프로그램을 공주와 부여의 백제

문화제에 부대행사로 참여시키거나 현장에서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함

- 인접 시·군의 참여 부대행사의 개최방법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공모제를 도입하여 이를 지원·육성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